

COR: 1-546



광
세
십
이
년

이
수
경
표
경
리

맛
너
보
음

양
심
문
광
사
원
교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石印正印



맛디복음테일장

암라함의자손다빛의후예예수키리쓰토의족모라암라함이이삭을낳코
이삭이야곱을낳코야곱이유다의형테를낳코유다가다말씨를위하여
릿파시라를낳코바릿논이슬움을낳코이슬움이아람을낳코아람이아미
나답을낳코아미나답이낫손을낳코낫손이살몬을낳코살몬이라함씨를
위하여보웃슬낳코보웃시룻을위하여오벳을낳코오벳은옛씨를낳코옛
씨난다빛왕을낳코다빛은우라의처를위하여솔노몬을낳코솔노몬은로
보암을낳코르보암은아비아를낳코아비아난아삼을낳코아삼은요사
발을낳코요사발은요람을낳코요람은오시아를낳코오시아난요아담을
낳코요아담은아합을낳코아합은이시가를낳코이시가는마낫슬낳코마
낫손아못을낳코아못은이시라를낳코빅성이바브론게을부물불셔여
요시아호냐와그동성을낳코빅성이바브론에올후에호냐살나델을
낳코살나델이소도바발을낳코소도바발은아비웃을낳코아비웃은일니

야김을 낫코 빌니 야김은 아솔을 낫코 아솔은 사독을 낫코 사독은 아힘을 낫
코 아힘은 일니 웃을 낫코 일니 웃은 일니 아살을 낫코 일니 아살은 맛단을 낫
코 맛단은 야곰을 낫코 야곰은 요섭을 나으니 예수라 일것난 기리쓰토나 온
마리암의 가당이 라 그 세 계를 상고한 즉 암라 함으로 부터 다 빛에 날으도록
열네 디요 다 빛으로 부터 빛성이 바부론에 올 물 볼 새 지 열네 디요 빛성이
이 바부론에 올 물 볼 새 지 리쓰토 새 지 날으도록 또 한 열네 디요 다 예수 키리
쓰토의 나물 하면에 기록호 노라 어맘 마리암은 요섭의 빙은 한 바 되여 혼인
전에 성령으로 잉태호 놀 보미 그 지 아비 난을 온 사롬 이 과 육 되 물 나 타 너 지
안코 저 하여 사사로히 말기를 뜻호 고 이를 싣 각 할 즈음에 주의 사자 솜에 보
이 고 갈 오샤 디 다 빛의 후에 요섭 아디의 처 마리암 취호 기를 누셔 위 말 나 호
문 비 인 바가 성령으로 말 무암 아라 디야 말을 나을 지 니 일 함을 예수라 칭호
라 이 논 장 차 그 빛 성을 죄에 구완호 리 니 이 거사 다 일 너 하 나 남 이 선 지 의 게
부탁 호 여 일 온 바가 응험 할 거 시 처 너가 잉태 호 여 아 딸 을 나 으 리 니 사 례 이

그 일홈을 칭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니 신즉하나님이 우리와 함씩히 마
라요섭이 자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자의 명까지 칭하여 그 처를 취하여 다
가 동참치 안코 아달을 나으매 밋처 일홈을 칭하여 예수라 한다라

맛디복음의 이장

헤롯왕씨여 예수가 유대벳니임에 나니 박사수인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
임에 놀으리 같오더니 은유대인의 왕이 어디잇나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
을 본고로와서 절하려 하니 헤롯왕이 듯고 울울하니 오은 예루살임
이 함씩히 여이여 모단제사장과 파민간 선비를 모와 물으되 키리쓰토가 어
곳에셔 낫나뇨 하니 같오더니 유대벳니임인 거시 선지 기록한 바에 유대벳니
임아 유대도 슈중에 너가지극히 적지 않은 거시 장차 도슈가 너게로 나니
이 살일뵙성을 차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이여 헤롯이사사로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별나타는 것을 힐문하고 보더니 벳니임에 가라호며 일오더니 희가
셔 자세히 아히를 차자 만년즉나게 보호니 도또한가 절호갓다 하니 박사

명을듯고 항하다 가 동방에서 보이던 별이 압풀인도 하여 아히잇난 곳에
이러고 우에 멧거 날 박시 별을 보고 즐거우를 이기지 못하여 집에 들어가 아
히고 어맘마리 암파 함쇠이사물 보고 업더 여 아히게 절하고 보비롤 열어
물올디리는 뒤 황금파유향파물약이다라 박사숨에 가라치물 넘어 헤롯의
게로도라 가지 안코 곳셔나 물온길 노저의게 가니라 셔는 후에 주의 사자 요
섭의게 숨에 보이고 광오 뒤 날이나 아히파 그어 맘을 다리고 이 굽에도 망하
여 거괴 잇다가 너네게 일의 기를 기다리라 후 문헤롯이 장차 아히롤 차자
기려 호미라 하니 여느어나 아히파 그어 맘을 다리고 밤에 셔나 이 굽에
거괴 이서 헤롯 죽으메 날은 기는 셔 주가 선지의게 부탁하여 일년사 뒤 이 굽
으로 좃차 너의 아탈을 볼넛다 물응험케 호미다라 당시 여 헤롯이 박사의게
희롱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롬을 베틸니 임경 너에 보너 여 잇난바 남일인
아히롤 그 박사의게 자세히 못던 셔롤 안찰하여 무릇 세서울 셔알에로 다
취기니 여 선지예 리의 말이 일오되 라 마에 셔올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

니가 열씨가 자식들을 너와 위고져 안으므로 그 잇지 안으미라 하물음은 하다
과 해롯이 죽으미 주의 사자의 굽에서 요셉의 개현몽하 보았노라 보어 나가
히 파그너 말을 다 리고 아살 일에 항하 문아 히명을 히코져 하던 사름이
죽으미 죽이여 벌어 내 아히 파그너 말을 다 리고 아살 일 사에 벌으리 알히노
가 아 밤 해롯을 니여 유더 왕 되물 듯 고 들 어 가기를 보 셔 위하 다 가 다 곳 솜에
가 라 치 물 어 든 고로 셔 나가 니 지 병에 벌으리 한 고을 에 벌으니 일 흥은 나
살 잇이 라 거 호 문 옛 선 지의 말 잣 차 나 살 잇 사름 이 라 하 미 응 험 하 다 라

맛 더 복 음 데 삼 장

셔 여 밤 틈 레 례 버 푸는 보 안 너 유 더 들 게 벌으리 텨 하 여 같 오 더 회 기 하 라 텨
죽 이 갓 가 오 니 라 하 니 이 사 름 은 선 지 이 사 야 의 벌 한 바 자 라 일 오 되 들 게 셔
볼 은 소 리 이 사 되 주 의 길 을 예 비 하 고 그 더 도 롬 발 으 게 하 리 라 한 이 라 요
안 니 난 약 더 털 옷 슬 남 고 가 족 셔 례 허 리 에 묵 고 누 벌 기 파 청 밀 을 먹 으 니 이
여 예 루 사 름 파 유 더 파 울 단 사 방 사 름 이 요 안 너 의 게 나 아 가 그 죄 를 말 하 며

올단 에 너 밤 틴 레 를 너 의 게 밧 으 니 터 바 리 식 파 샷 두 기 사 롬 이 만 이 밧 으 려
 오 물 보 고 일 오 된 독 샤 의 자 식 아 누 가 너 희 로 장 너 의 노 톨 피 흐 라 터 나 고 로
 회 기 에 합 당 게 열 음 을 밧 치 고 스 사 로 압 라 함 이 오 리 조 상 이 라 쫓 호 지 말 나
 너 너 희 게 일 오 노 니 하 나 너 이 능 히 이 돌 노 쉰 압 라 함 의 자 식 을 변 게 흐 리 라
 이 제 독 구 롭 남 우 썩 리 에 두 워 사 니 무 룯 선 한 열 음 이 밧 치 시 안 는 나 무 남 썩
 어 불 에 버 리 리 라 단 기 나 는 물 노 썩 밤 틴 레 를 버 푸 리 너 희 를 회 기 에 밧 게 흐
 되 다 못 너 뒤 에 오 난 자 나 보 담 트 승 호 여 너 그 신 열 물 감 당 치 못 흐 리 니 터 장
 차 성 령 파 불 노 썩 밤 틴 레 를 너 희 게 버 푸 리 라 그 손 에 키 를 잡 고 그 미 당 늘 다
 말 기 살 이 여 밀 노 곡 간 에 드 리 고 게 는 새 지 에 안 는 불 노 썩 살 으 리 라 호 니 썩
 여 예 수가 니 너 로 부터 올 단 자 늘 으 리 요 안 너 의 게 나 아 가 밤 틴 레 를 바 드 려
 호 니 요 안 너 시 양 호 여 갈 오 되 너 가 맞 당 히 밤 틴 레 를 선 싱 의 게 바 들 데 도 로
 여 너 게 나 아 오 나 보 호 니 예 수 되 답 호 보 갈 오 샤 되 이 제 허 하 라 호 유 맞 당 히
 모 단 의 를 낚 오 미 라 호 미 이 여 허 하니 예 수 밤 틴 레 를 밧 고 물 우 으 로 올 나 가

5
니 하날이 위하여 열니고 하나님령이 비들기 갓 치음하여 구우에 멧으물
보니 하날에 소리가서 갈오샤다 이난 너의 사랑하느니 아달이 요니의 깃거하
는 바라하다라

맛더복음테사장

예수령의게인도하여 들에가 미귀의게 시험을 보느다 사십두야를 먹지 못
하고 주리니 시험하느니 아와 갈오다 비가 만약하나 너의 아달이면이 돌
을 명하야 섹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더 답하야 갈오샤되 기록하야 사되 사롬
이 섹만으로도지 안코 오직하나 너의게로나 아온말이 잇다 하니 이여 미귀터
를 놀이 고 성경에느으리 튜팅에 서우고 갈오다 케만약하나 너의 아달이면
알에 셀어지라 기록에하야 사되 주베발이 들에 들니 올가 점퍼하야 사자롬
명하야 손으로써 너를 뭇드리라 하니라 예수갈오샤되 쏘한 기록하야 사되
주니 희하나 너를 시험치갈나 하느다 하니 미귀다 시터 례다 리고 돕는 산에
올나 세상모단나라 파영화로써 보야 갈오다 만약 부복하야 너게 절하면 일

노새다 너를 수리라 하니 예수 갈오샤되 사탄은 가라 기록에 하여샤되 이 주
너희 하나님게 절호호호를 노섬기갓다 하니 이 보미귀 예수를 써나
니 사자블 느림섬기다 예수요 안너잡혀샤물듯고써나 가니 너에 날으리
나살잇으로 나가 발남에 곳히변사부논파남말남디경에거하니 선지이
사야의일은말이사부논파남말남사이다 바다오로가논길에올단밖외방
가니 너니어두온더안존빅성이큰빛출보고죽은그늘에안존자게도빛치
현발하였다 하미응험하다 라일노부터비릇하여턴하여갈오샤되 너희희
지하라 텨국이갓가왔다 하다 라예수가니너히변에주류하다 가시몬피들
이라하난자파그동심압드라가 바다에서그물치물보니그논고기잡난자
라예수갈오샤되나를조추라니 갓차비히로사룸엇난자룸삼으리라 하니
이여그물을써나예수를조다라일노조차행하다 가시비디의아말야곰파
그동심요안너두사룸이그아밤시비디로학희비에서그물기우물보고물
으니 이여아밤을작별하고비를써나조다라예수오온가니그예수류하여

6
터의 회당에서 가라치며 텃국의 복음을 전하며 복성의 모단 병과 알난 자를
긋치니 이 여일 흠이 헤여져 오우 슈리아에 퍼지니 모단 알난 자를 다 리고 왓
난 뒤 열어가 지 병과 통곡한 데 잡편자 파 귀신 붓튼 자 파 질 알난 자 파 바람
중하는 자 다 라 예 수 이 야 곳치니 가 니 너 파 더 카 포 리 파 예 루 사 팀 파 유 더 파
올 단 밧 복 성 이 만 이 좃 다 라

맛 뒤 복 음 테 오 장

예 수 그 사 롬 을 보 고 산 에 올 나 안 즈 니 테 자 나 아 오 기 날 예 수 입 을 열 어 가 라
쳐 갈 오 샤 더 마 암 궁 빈 한 자 복 이 문 텃 국 이 터 의 나 라 이 되 고 슬 퍼 호 는 자 복
이 문 그 안 위 가 잇 고 온 순 한 자 복 이 문 세 상 을 엮 고 의 롭 과 갈 호 는 자 복 이 문
비 부 르 고 가 련 히 베 기 난 자 복 이 문 가 련 히 베 기 불 밧 고 마 암 말 근 자 복 이 문
하 나 님 을 보 고 화 목 게 하 나 자 복 이 문 하 나 님 의 아 딸 이 라 칭 호 고 의 롭 위 호
여 꺾 박 을 밧 는 자 복 이 문 텃 국 이 터 의 나 라 이 되 고 비 희 나 롭 위 하 여 사 롬 의
혜 방 파 군 꺾 파 모 단 거 좃 약 언 을 밧 는 자 도 복 이 이 사 리 니 즐 기 고 희 락 호 라

하날에서 너희상주미그리니 더기 사롬이 너희전선지롤군핍함노클기하
나라 너희는세상의소곰이니 소곰이 그맛슬일면엇지싸게하라 쓰더업
서밧게버려사롬의게발피나 나라 너희는세상밧치니 산에서운고을이능
히숨기지못하니 나라 사롬이 등불을혀알에두지안코 화더우에두문집
안모단사롬의게밧치의게함이니 이것너희밧치사롬의게밧치위선한
일을보여하날에잇는아밤을영화게하라 놀법파선지롤혈베온줄노베
기지말나 너가오문혈미안이요되게하미라 너실노너희게일오나 니턴디
는지너메밧쳐노놀법은일텀일회이능히일우지못하면지너지안나 나라
고로경계에지극기적은한나을패하여사롬을가라치논자면턴국에서지
극기적다하고쫓차가라치논쟈는턴국에서크다하니 나라 너희게일오
노니 너희의가선비파바리신인보담넘지못하면턴국에나아가지못하
나 나라 넷말에일너샤되사롬을쥐기지말나 쥐긴즉판죄를밧는다물너희
드릭시니클어나 너희게일오노니 동싱을노하논쟈는판죄를면치못하

고동상을 열시^{三十三}는^{三十四}자^{三十五}는^{三十六}공회^{三十七}를^{三十八}면^{三十九}치^{四十}못^{四十一}하^{四十二}고^{四十三}동^{四十四}상^{四十五}을^{四十六}몸^{四十七}슬^{四十八}놈^{四十九}이^{五十}라^{五十一}하^{五十二}는^{五十三}자^{五十四}는^{五十五}
 접^{五十六}푸^{五十七}던^{五十八}덕^{五十九}옥^{六十}의^{六十一}화^{六十二}에^{六十三}이^{六十四}사^{六十五}리^{六十六}라^{六十七}레^{六十八}물^{六十九}을^{七十}단^{七十一}에^{七十二}들^{七十三}이^{七十四}고^{七十五}저^{七十六}하^{七十七}되^{七十八}동^{七十九}상^{八十}의^{八十一}게^{八十二}클^{八十三}으^{八十四}미^{八十五}
 잇^{八十六}는^{八十七}줄^{八十八}을^{八十九}싱^{九十}각^{九十一}하^{九十二}면^{九十三}곳^{九十四}레^{九十五}물^{九十六}을^{九十七}단^{九十八}암^{九十九}페^{一百}두^{一百一}고^{一百二}가^{一百三}만^{一百四}저^{一百五}동^{一百六}상^{一百七}을^{一百八}화^{一百九}목^{一百十}하^{一百十一}고^{一百十二}후^{一百十三}에^{一百十四}와^{一百十五}
 셔^{一百十六}레^{一百十七}늘^{一百十八}을^{一百十九}들^{一百二十}이^{一百二十一}라^{一百二十二}베^{一百二十三}파^{一百二十四}결^{一百二十五}누^{一百二十六}는^{一百二十七}자^{一百二十八}함^{一百二十九}쇠^{一百三十}길^{一百三十一}에^{一百三十二}이^{一百三十三}살^{一百三十四}셔^{一百三十五}급^{一百三十六}피^{一百三十七}화^{一百三十八}하^{一百三十九}라^{一百四十}너^{一百四十一}를^{一百四十二}판^{一百四十三}장^{一百四十四}
 의^{一百四十五}게^{一百四十六}붓^{一百四十七}지^{一百四十八}면^{一百四十九}판^{一百五十}장이^{一百五十一}아^{一百五十二}역^{一百五十三}의^{一百五十四}게^{一百五十五}붓^{一百五十六}쳐^{一百五十七}옥^{一百五十八}에^{一百五十九}너^{一百六十}리^{一百六十一}가^{一百六十二}접^{一百六十三}퍼^{一百六十四}하^{一百六十五}니^{一百六十六}라^{一百六十七}너^{一百六十八}실^{一百六十九}노^{一百七十}네^{一百七十一}게^{一百七十二}일^{一百七十三}
 오^{一百七十四}나^{一百七十五}니^{一百七十六}한^{一百七十七}편^{一百七十八}이^{一百七十九}라^{一百八十}도^{一百八十一}셔^{一百八十二}리^{一百八十三}지^{一百八十四}면^{一百八十五}결^{一百八十六}단^{一百八十七}코^{一百八十八}터^{一百八十九}기^{一百九十}나^{一百九十一}아^{一百九十二}오^{一百九十三}지^{一百九十四}못^{一百九十五}하^{一百九十六}리^{一百九十七}라^{一百九十八}음^{一百九十九}난^{二百}치^{二百一}말^{二百二}나^{二百三}
 하^{二百四}물^{二百五}너^{二百六}희^{二百七}들^{二百八}어^{二百九}사^{三百}나^{三百一}오^{三百二}직^{三百三}나^{三百四}는^{三百五}너^{三百六}희^{三百七}게^{三百八}일^{三百九}오^{四百}나^{四百一}니^{四百二}식^{四百三}을^{四百四}보^{四百五}고^{四百六}조^{四百七}와^{四百八}하^{四百九}는^{五百}자^{五百一}는^{五百二}마^{五百三}
 암^{五百四}이^{五百五}이^{五百六}무^{五百七}음^{五百八}는^{五百九}하^{六百}니^{六百一}라^{六百二}만^{六百三}약^{六百四}우^{六百五}견^{六百六}눈^{六百七}이^{六百八}너^{六百九}희^{七百}를^{七百一}것^{七百二}치^{七百三}게^{七百四}하^{七百五}면^{七百六}등^{七百七}구^{七百八}쳐^{七百九}버^{八百}리^{八百一}고^{八百二}차^{八百三}
 라^{八百四}리^{八百五}빅^{八百六}체^{八百七}예^{八百八}한^{八百九}나^{九百}이^{九百一}업^{九百二}살^{九百三}지^{九百四}언^{九百五}텅^{九百六}오^{九百七}우^{九百八}몸^{九百九}이^{一千}더^{一千一}옥^{一千二}에^{一千三}터^{一千四}지^{一千五}물^{一千六}면^{一千七}하^{一千八}고^{一千九}만^{二千}약^{二千一}우^{二千二}견^{二千三}
 손^{二千四}이^{二千五}너^{二千六}희^{二千七}를^{二千八}것^{二千九}지^{三千}게^{三千一}하^{三千二}면^{三千三}척^{三千四}거^{三千五}버^{三千六}리^{三千七}고^{三千八}차^{三千九}라^{四千}리^{四千一}빅^{四千二}체^{四千三}예^{四千四}한^{四千五}나^{四千六}이^{四千七}업^{四千八}살^{四千九}지^{五千}언^{五千一}텅^{五千二}오^{五千三}
 온^{五千四}몸^{五千五}이^{五千六}더^{五千七}옥^{五千八}에^{五千九}가^{六千}물^{六千一}면^{六千二}하^{六千三}라^{六千四}또^{六千五}말^{六千六}이^{六千七}만^{六千八}약^{六千九}사^{七千}람^{七千一}이^{七千二}쳐^{七千三}를^{七千四}너^{七千五}여^{七千六}보^{七千七}너^{七千八}면^{七千九}곳^{八千}각^{八千一}남^{八千二}은^{八千三}
 셔^{八千四}를^{八千五}저^{八千六}준^{八千七}다^{八千八}하^{八千九}여^{九千}사^{九千一}되^{九千二}오^{九千三}직^{九千四}나^{九千五}난^{九千六}너^{九千七}희^{九千八}게^{九千九}일^{一万}오^{一万一}나^{一万二}니^{一万三}음^{一万四}난^{一万五}치^{一万六}안^{一万七}난^{一万八}쳐^{一万九}를^{二万}너^{二万一}여^{二万二}보^{二万三}
 너^{二万四}는^{二万五}자^{二万六}는^{二万七}음^{二万八}는^{二万九}을^{三万}시^{三万一}기^{三万二}미^{三万三}요^{三万四}너^{三万五}여^{三万六}보^{三万七}너^{三万八}쳐^{三万九}를^{四万}취^{四万一}하^{四万二}는^{四万三}자^{四万四}도^{四万五}또^{四万六}한^{四万七}음^{四万八}난^{四万九}을^{五万}행^{五万一}하^{五万二}미^{五万三}

六

라 또 넷말에 밍세를 지어 버리지 말고 주의 계일이라 호물들여 사나 오직 나
 는 너희게 일오나니 아 못 밍세도 말 거시 하날을 가라치지 말나 하날은 하나
 님의 자리요 쌍을 가라치지 말나 쌍은 그 반등이요 예루사림을 가라치지 말
 나 예루사림은 이 큰 남군의 셔올이라 또 네머리를 가라치지 말나 한나머리
 실도 능히 희고 검게 못하리라 너희말이 오직 올고 글다 논 거시 이 에셔 넘진
 즉 악으로 말도 암아 날미라 말하여 사되 눈으로 눈을 감고 나로 니를 감는다
 물너희들여 사나 오직 나 너희게 일오나니 악을 더적치 말며 사롬이 너희
 우견셈을 치면 터 견셈 거지도 리워 향이며 사롬너희를 송사 하여 속옷을 벗
 고 저하면 밧견 옷 것지 또 한 허며 사롬이 너희를 강인 하여 일니를 행하면
 합쇠이 리를 행하고 너희게 구하는 자를 주며 너희게 비는 자를 도라셔지 말
 나 또 말하여 사되 근체를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한다 물너희들여 사나 오직
 나 너희게 일오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근박하는 자를 밧나 이
 가 탄승너희가 하날에 계신 아바님의 아들이 되나니라 되키 아바님이 그히

로써 악한 자 파멸한 사의게 드게 하며 비로써 온 으며 큰 온 자 의게 오게 하나
니 너 회 사랑 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삼 감푸미 이사랴 세관이 또한 이 갓지 안
으랴 너 희 동성 계만 인사 하면 무어 시 넘지 미 이사랴 외방이 또한 이 갓치 아
니랴 고로 너 희 온전하기를 하 낙에 잇는 아바님 갓치 하라 하 다라

맛 더 복음 데 녹 장

삼가 너 희 의를 사 롱의 게 행 하여 너 보게 말 나 클 어 치 안 이 즉 너 희 가 하 날
에 게 신 아바님의 게 감 푸미 업 사 리니 고로 구 제 할 셔 여 암 폐 서 나 발 불 어 거
죽 선 하는 자 회 당 파 결 이 에 서 희 하여 사 롱의 게 영 화 를 받 는 것 갓 치 말 나 너
실 노 너 희 게 일 으 나 니 너 감 푸 물 밧 았 나 니 라 오 직 구 제 할 셔 여 자 권 손 으 로
우 권 손 에 하 난 바 를 알 게 말 나 이 갓 탄 즉 너 희 구 제 하 미 온 밀 하 리 니 너 희 아
바님 이 은 밀 한 셔 서 보 시 고 너 희 게 감 나 리 가 너 희 빌 셔 여 거 죽 선 하는 자 회
당 삼 거 리 에 서 빌 기 를 조 와 하여 사 롱의 게 나 타 니 임 갓 치 말 나 너 실 노 너 희
게 일 으 나 니 너 그 감 푸 물 밧 았 나 니 라 오 직 너 희 빌 셔 여 밀 실 에 들 어 가 셔 문

을닷고온밀한아바나의게발어도니희은밀한되셔본아바님이네게갑푸
 리니또발셔여외방사롬갓치한말을곱하지말나너말이만으유드릴가뜻
 하미니고너터파갓치말나너희구하기점에쓸바를아바님이아나니발기
 록이갓치하여라우리하날게게산아바님아바님의일홈이성하시며아바
 남나라이남하시며아바님뜻이쌍에일우기를하날에행하심갓치하시며
 쓰노바음식을날마당우리를주시며사롬의빛샤함갓치우라빛을샤하시
 며우리로서험에드지안게하시며오직우리를악에구완하여너소서하라
 녀희사롬의허물을샤하면하날에잇는아밤이또한너희허물을샤하고너
 희가사롬의허물을샤치안으면너희아밤이또한너희허물을샤치안나니
 라너희지게할셔여거죽션하논자갓치징그지말나너갓출변하여사롬의
 게골두물나타니아나니라너실노너희게일오나니터갑푸물밧앗나니라
 오직너희논지게할셔여머리밧고갓출깃고사롬의게지게하물나타니아
 지말고오직은밀한아밤의게하여라너희은밀한되셔본아밤이너희게갑

나리라진 들을쌍에삿치말나 좀과 동목이슬어지며 또 도적굴지파며 도적
하논곳이라 오직 짐물을하날에싸으라 좀과 동목이슬어지지안이 하고 또
도적이살지파며 도적질하여가논곳이안이리라 너희 짐물잇논곳에마암
이또한잇나 나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눈이 한글갓타면 오온 몸이 빛나고 눈
이 악한즉 오온 몸이 어둡나니 너희 안악 빛치만 약어 두으면 그 어두우며 일
미나 크랴 한 사름이 두쥬인을 능히 섬기지 못하나니 혹한 나롤 미워하며 한
나롤 사랑하고 혹한 나롤의탁하며 한 나롤가 부야히 메기리니 너희 능히 하
나님파진신을 섬기지 못하나니라고로 너희세일오나니 목숨에 무어슬
먹으며 무어슬 마시며 몸게 무어슬 남을고 념베치말나 목숨이 음식보담더
하지안으며 몸이 의복보담더하지안으랴 공중에서 료보라시무지도 안코
거두지도 안코 꼭간에가적도 안이 하되다 못너희 텨부가치나니 너희가엇
지시보담더귀치안으랴 너희능히 념베로써기예한 자롤더하랴 엇지의
복을위하여 념베하나나들에나리 섯출행하라 엇더게 자리며 입부지도안

죄방적도안이 하되 너희게 일과 나니 소로몬의 영화극할셔여 도그이분
거시이 하셋갓 못지 하엿나 니라 또 밧테 풀은 노날은 이다 가 너일은 화근에
터지되 하나 남이 꾸밈이 이갓타 니하물며 너희적게 밧는 가 나고 노무어스
로 먹으며 무어스 노마시며 무어스로 남기를 념비차 말나 이다 외방사람의
구하논바니 오직 텃부논 너희이다 쓸줄을 아나 니라 닳만져 하나 남의 나
학파의 룬구한즉 이논다 너희게 터하나 니고 너일을 념비차 말고 너일치
남니 일 념비하고 하루곤고 난 하루면 족하니라

맛디복음테 칠쟝

사롬을 평논차 안위즉 너희 평논을 보지 안나 니다 너희 무삼 평논으로써
사롬을 평논하면 너희 장차 날노써 평논을 보고 또 너희 무삼도량으로써 사
롬을 헤알인즉 사롬이 장차 이 두량으로써 너희를 주나 니엇지 하여 동심
눈에 가시이사물 보고자 괴눈에 보장이 사물 씨앗지 못하나 나 또 엇지 동심
의게 말하덤나를 허하여 가시를 씨작하나 나 보라자 괴눈에 눈보장이 있나

나라가 죽연한 난자 난안저 자의 눈에 붓장을 썩고 발기 보거든 씨동심의 눈
에 가시를 썩여 라성한 물건을으로써 기게 주지 말며 구술노써 뜻트게 버리지
말나 저 푸건 된 터말다가 도리며 너희를 쓰즐가 하노라 구한즉 너희를 주고
치 존죽 반년고 문을 썩진즉 여나 나무론 구하는 자는 엇고 찬난 자는 안년고
문을 썩지 않는 자는 열나 나 나라 너희중에 어니 사람이 그 아말이 석을 구하난
덕들을 주며 고기를 구하난 더 비암을 주라 너희 비록 약하나 오해려 조흔물
건으로 아말 줄 줄을 알시니 하물며 너희 하날에 게신 아바님이 조흔물 건으
로써 구하는 자를 주지간으라 고로 나 름이 너희게 베풀고져 하는 거술이 갓
치 사람의 게 베풀나 이 놀법 파션지 나라 좁은 문으로 나가라 멸망하는데
는 분도 넘고 길도 광활하여 들어가는 자만코사 난데 난은 좁고 길도 협척
하여 들어가는 자져그 나라가 죽연지를 삼가하라 그 너희게 나가난 거시
밧그로 양갓타다 안으로 나사 나온 사랑이라 그 열음으로써 아나니 가시
에셔 포도파능장이 에셔 무화파를 따랴 조흔남게는 조흔 열음이 밋치고 약

한남게난악한열음이밋치며쵸흔남게악한열음이밋치지못하고악한남
게쵸흔열음이밋치지못하니무론남게쵸흔열음이밋치지안는쟈는새
거불에터지나니고로그열음으로써터롤아나니카무론나롤슈야쵸야일
것는쟈는다_{三三}턴국에들어가지못하되오직너의하나님의뜻을좃는쟈야들
어가나니라_{三三}그날게열어사룸이너게일오더쵸야슈야우리쵸의일_{三三}흥으로
써도롤턴하며쵸의일_{三三}흥으로써귀신을쫓추며쵸의일_{三三}흥으로써만이능하
물히치안앗나노_{三三}하면너갈오더무법한쟈야너희롤아지못하니나롤써
나가라하리라_{三三}너말을듯고힘하는쟈는비기건던지헤잇는사룸이집을반
석우에셔우미니비_{三三}가와탕슈나고바람이불거집을밀쳐도물어가지안이
문터이반석우이미요_{三三}니말을듯고힘치안는쟈는비기건던밀연한사룸이
집을모식우에셔우미니비_{三三}가와탕슈나고바람이불거집을밀치면이여물
어지고물어지미크니라하여예수말을다하샤되못사룸이그가라치물경
동하문그사룸을가라치미권세잇는쟈갓고션비갓지안이머터라

맛녀복음에팔장

예수산에너리미하다한사룸이쫓즈니되나풍잇는자나아와질하여갈오
더쥬즐기시면능히나물성계하리이다하니예수손으로민져갈오샤더너
즐기니너는간정하라하미되나풍이꽃낫는지라예수일오샤더삼가사룸
의게고치말고다못가제사의제보이고모쇼의명한바레를들디려못사룸
의게간증을삼으리라하다가발남에들어관셔여한파총이예수의게나아
와구하여갈오더쥬아너의종이병들어바람중하여집에누워심히말년하
나이다하니예수일오샤더너가셔곳치리라하미되갑하여갈오더쥬너집
에남하시면감당치못갓사오니오직말한마지만하시면종이나을거시더
기나는사룸의헌세에붓고군사난니게붓터사니명하여행하라한즉히하
고오라한즉오고종으로이를행하라한즉곳행하나이다예수듯고괴괴히
베겨죽는자의게갈오샤더너실노너희게일오노니이살일가온더이갓치
밋으물만거지못하였노라너너희게일오노니동세로붓터열어사룸이장

차느니라 암라 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터부러던국의듯게 안즈되 본국자식은
 은철역 그으한곳에서 쫓겨가 이곡절치하리라 하고 예수와 총의게일오샤되
 가라 너의 밋음갓치 일넛다 하니 종이 즉시 나온지라 예수피들의 집에닐으
 리피들의장모와질노누워사물보고손으로민지니 병이셔나미부인이닐
 어일을엿투다라 저물기여만이 귀신붓튼자를다리고나아오니 한말노써
 귀신을쫓고병든자를다곳치니 선지이사야의일은바말이니 약을맛고상
 하물지리라 하미응협하다라 예수허다한사람이들너시물보고테자를명
 하여터견두던에가니 한선비나아와갈오되 선성님이더를가시던자너쫓
 츠려하나이다 하니 예수일오샤되 여우도궁기잇고 시도깃시이사되오직
 인자단말이들곳이업다 하다라 또한테자갈오되 주나를용납하여만져가
 야밤을장사케하소서 하니 예수갈오샤되 죽은사람을맛져죽은사람을장
 사하고너는나를쫓추라 하고 예수비에올으시미테자쫓추니 바다에놀이
 심하여 그의비를담게되엇는뒤에 수논자거날테자나아가서와갈오되 주

아 우리를 구원 하소서 거의 망하게 되나이다 하니 예수 갈오샤 되적게 밋는
 자야 엇지 무셔워 하느냐 하고 즉시 불러 바람 파바다 올침망하니 곳크게 안
 정하^는지라 못사롬이 괴괴히 비겨 갈오되 텨엇터 한사롬이기로 바람 파바
 다 이또한 좃는요 하^다라 예수 건비여가 다린디 방에 놀으립 귀신 못든 자들
 을 만니니 무덤으로 못터 나오미 심히 사나와 그 길을 감히 건디 가는 자 업는
 지 각이 여볼디 갈오되 하나님의 아물아 우리가 비파어드립기로 쟈전에 비
 와셔 우리를 말년케 하^나냐 하고 말니 못의 물이 이서 먹으물 보고 귀신이 청
 하^여 갈오되 만약 우리를 쫓가사면 우리를 보디 여 못의 물이 에 들게 하^라하
 니 갈오샤 되 각하^미 귀신이 나안 듯으게 들어가니 그 물이 이여 산파에 쉬
 여 너러바다에 죽으니 목인이 물아 생어 들어가니 그 일파 귀신 못터던 자의 연
 꼬로써 사롬의게 보^니 오온고 올이나 아와 예수를 보고그디 경셔나기를
 청하^다라

맛디목음테구장

예수비에올나바다을건뵈며고향에닐으니사람이바람중호는자상게누
온거슬머이고오거날예수그깃으물보고바람중호는자게닐오샤더쇼자
야마암을노라죄를샤한다하니션비수인이마암에갈오더이사람이참
남하다호거날예수그뜻을알고갈오샤더히마암에엇기악을풍나야죄
를샤함과닐어헝호는거시어너거시십맛나야다못너희로인사쌍게셔죄
샤호는권세이사물알게호리호호고이여바람중호는자게닐오샤더닐어
상을가지고집으로도라가라호미곳닐어집으로도라가나못사람이보고
두려워하나님을영화호문이런권세로써사람을주미라예수거괴로가다
가한사람을보니일홈은맛더라세소에안젓거날일오더나를쫓추호니라
이여닐어쫓다라맛참예수맛더의집뚫게아즈미열어세관파죄인와이에
수파테자로터부리함씩안즈니바리시위이보고그테사의게일오되엇지
너희스성이세관파죄인으로터부리함씩먹나냐하니예수뚫고갈오샤더
건장한자논의원을쓰지안코병든자야쓰나나다못너금홀호고제사코저

안는말의뜻이엇더^하물비와가라니가오^문을은사람을불으미안이요이
 죄인이미라^하다^요안니의테사예수의게나아가^갈오^더우리^파반리시
 인은자주^적게^하는^디오^직너의테자^는지^게치^안으^문엇^지요^예수^갈오^샤
 더^실낭이이슬^적에^경하^는쟈^엇지^슬어^랴오^직쟝^너에^실낭이^셔나^간
 후^에지^게하^리라^시무^녕의^로써^헌오^슬김^지안^으문^기운^거세^그오^슬안^고
 터^지미^심하^미요^시슬^노써^헌피^디예^넛치^안으^문피^디가^터져^술이^시고^도
 한^피디가^망하^미니^오직^시피^디로^써시^슬을^담우^면두^가지^다온^전하^나니
 라^예수이^를발^하실^셔여^한지^상이^와절^하여^갈오^더니의^쌀이^거즌^죽어^가
 니^다못^쥬와^셔손^으로^안찰^하면^곳살^갓나^{이다}하^니예^수닐^어쫓^차테^자파
 함^회헝^하는^데한^부인^이디^하중^하난^지열^두히^여예^수뒤^예셔^그옷^단을^민
 지^고쫓^하되^오직^그옷^만민^져도^낫갓^다하^다니^예수^도라^보와^갈오^샤더^녀
 인^아베^마암^을노^이라^밋으^면나^으라^하니^일노^뵈터^부위^이나^온지^라예
 수^지상의^집에^들어^가테^를불^며뭣^사롬^이분^요하^물보^고갈^오샤^더물^너가

라 너의 죽지 안코 잔다 하니 못사람이 웃거 날 못사람을 너 쫓고 예수 들어가
그 손을 잡으니 너의 곳 붙어나 거 날 일 노써 명성이 그곳에 헤여지다 라 예수
일도 말 무암아가 느디 두 쇠경기 이서 좃츠며 불너 갈외되다 빛의 후에 눈우
리를 어엿비베기 소셔하디니 짐에 들어가 미 쇠경된쟈 나 아오거 날 예수 갈
오샤 뒤 너 능히 하난 일을 베 밧갓나야 하니 갈외되 주아 클어 하갓나이다 하
니 이 보그 눈을 민져 갈외샤 뒤 베 밧으 무로써 일 벗다 하미 눈이 곳 밧그니 예
수 엄히 형게 하디 갈외샤 뒤 너 희삼가 사랑으로 알게 말나 두 사람이 나가 그
일 흥을 이쌍에 헤치다 라 너 나간 후에 병일이 파 귀신 못튼쟈 룰다 리고 오거
날 귀신을 쫓츠미 병일이 갈외니 못사람이 괴기히 베겨 갈외되 이 살일 가온
더서 눈일 즉 일언 일을 보지 못하엿다 하니 바리시인이 갈외디 트 귀왕을 빙
차 하여 귀신을 쫓난다 하다 라 예수 향음에 주류하여 회당에 서가 라 칠세 텨
국복음을 전하며 백성의 질병을 쫓치다 가 못사람을 보고 이 염비베가 문그
곤고 하고 뉴리 하미 양이 목인 업슴갓타 무로써 하미 다 라 텨자 게 일 오샤 뒤

저들거손만코싸군오져그니주인의게구하여싸군을보시여힘써거두게
하라하라

맛디복음데십장

예수열두데가롤볼니권세를주워샤귀를썩추며질병을끗치라하니열두
테자의일흔은호면에괴룩하여사니처음한테자논시몬이니피들이라호
고그동심안들야파시바되아말야곰파그동심요간니파비립파발도로마
파도마파세관맛디파알비의아말야곰파맛디파예라칭호논시몬파슈를
팔잇가료유다다라예수열두사롬을보니며명하여갈오샤되외방의길에
나아가지말고사마라고을에들지말고오직이살길집에망한양의게행호
라칭호며던호여갈오되던국이갓가왔다호고병을끗치며죽은자를닐게
호며빅남풍을간정게호며귀신을썩고너희공히바든바로써공히베풀나
금파온파돈파전디를테축지말고길에차루파두벌옷파신파막디를가지
지말나싸군이그음식이싸니라고을에들어가끗뒤를차자올은차며든디

부리거 하 여 갈서 거 지 이스라 루론 사 롱 의 집 게 들 어 가 문 안 하 라 그 집 이 싸
면 너 희 빈 바 문 안 이 남 호 고 싸 지 못 할 것 갓 타 면 너 희 비 는 바 문 안 이 자 괴 게
로 도 라 오 리 라 너 희 를 더 점 지 안 으 며 너 희 말 을 듯 지 안 난 자 난 그 집 파 고 을
을 써 날 서 여 발 에 몬 주 새 지 셜 어 버 리 라 너 희 실 노 너 희 게 일 오 노 니 판 죄 하 난
날 에 소 도 모 파 고 물 로 의 형 벌 이 이 고 을 에 비 기 면 터 밤 기 쉬 오 리 라 너 희
를 노 너 미 양 이 일 이 물 에 들 어 감 갓 탄 고 로 지 헤 를 비 암 갓 치 호 고 순 호 기 를
비 들 기 갓 치 하 여 삼 가 사 롱 을 막 으 라 너 희 를 공 회 예 슬 며 회 당 에 서 처 석 질
하 리 라 너 희 장 차 나 를 위 호 는 고 왕 파 방 벽 의 게 슬 니 위 가 면 이 사 롱 과 밋
외 방 사 롱 으 로 간 중 을 삼 으 라 잡 퍼 갈 서 여 장 차 엇 지 호 며 엇 지 말 할 고 녀 녀
치 말 나 서 늘 으 면 너 희 를 두 삼 말 노 써 주 리 라 너 희 스 사 로 말 치 안 이 호 여 오
직 니 희 아 바 님 의 령 이 너 희 속 에 말 하 나 니 이 서 여 동 성 이 동 성 을 가 저 죽 을
데 늘 으 며 아 바 님 이 아 말 을 쏘 하 글 어 호 고 아 딸 이 부 모 로 호 여 공 죽 을 데 늘
으 나 니 너 희 일 할 을 위 하 여 못 사 롱 의 게 슬 퍼 볼 보 이 리 니 오 직 서 종 것 참

난쟈는 구완하나 나라이 고을에서 군박을 보면 곳터 고을 노말아가라 난질
 노너희게 일오나 나이 살일모단 고을에 주류치 못하노 이자가 벌오리 가
 자가 스싱을 넘지 못하거 종의 주이 을 넘지 못하나 나테가 스싱갓고 종이
 주긴갓타면 족하니 라 주이 일것기 로 별시 불이라 하난쟈 두이사 니하물며
 그집간 사룸일것나 나고 로터 로 무셔워갈가 간직한거 시낫타나 지안코은
 밀한거 시현노치산으미 업나 니너그옥하곳가셔너희게 알한거 슬발근테
 셔괴술호고너희귀로듯는거 슬집우에서 텨하라 몸은 죽어도 능히 령혼은
 죽이지 못하노자 로 무셔워갓고 오직 능히 몸을 죽이며 령혼을 다옥에 망게
 호는 샤로 차카리 두려워하라 식두말이 로 돈한편에 사지인 나냐 클어나너
 희아바님이 그한토쌍계 셜에 치지 안이하노너희멀이 슬도또한 수로 보나
 니고로 무셔워갈가너희가 안은 식보담귀하니 라 무론나를 사룸압페 발키
 알면너또한 너의 텨부압페셔 발키 알고 무론나를 사룸압페물으면너또한
 너의 텨부압페셔 물으니 너가 세쌍을 편아게 하려온 줄노네기 지말나너

가오문세상을편간치안게호미요오직팔을놀이유미라더기너가온즉아
 달이그아밤의게닷도고팔이그어맘의게닷도고메나리가그시어맘의게
 닷도나니원슈난곳집인사룸의게잇나니라부모를사랑호미너게자너는
 자도너게싸지안코자베사랑호미너게지너는자도너게싸지안코집직들
 을지^{三十一}지안코나를죽는자도또한너게싸지안으니라^{三十二}싱명을엇는자^{三十三}는망호
 고나를위호여싱명을망호는자^{三十四}는엇나니라^{三十五}희를더접호는자^{三十六}나곳나를
 더접호고나를더접호는자^{三十七}나곳나보닌이를더접호미니라^{三十八}선지를더접호
 문그선지를위호여선지의공베어드리니^{三十九}올은사룸을더접호문그올은사
 룸을위호여올은사룸의공베어드리라이^{四十}아히에하나이그너의^{四十一}데자되를
 인호호잔엇물노써맛길자라너실노브^{四十二}희게일오노니^{四十三}뎡공베주를힐치안
 으리라

맛더복음데십일장

아즘에수들테가게명호기를다호의거고를셔나모단고올에가가라치

여도를 행하더라 요안니 옥에서 키리쓰토 일히 한다 물듯 고 두 데 가 롭 보던
 여갈 오 드 올 자 가 피 더 니 잇 가 사 로 다 른 사 람 을 바 리 리 잇 가 하니 예 수 님
 하 여 갈 오 사 디 꾀 더 희 듯 논 바 파 보 논 바 울 가 셔 요 안 님 의 게 보 호 되 쇠 경 을
 보 게 하 며 안 잔 방 이 를 행 케 하 며 외 남 풍 호 난 자 를 정 재 하 며 귀 먹 당 이 를 듯
 게 하 며 죽 은 자 를 살 케 하 며 가 난 한 자 리 복 을 듯 게 하 나 니 무 론 나 로 새 것
 치 물 삼 지 안 난 자 는 복 이 라 하니 요 안 님 의 테 자 가 거 날 예 수 요 안 님 을 갈 아
 쳐 웃 사 람 의 게 갈 오 사 디 더 희 들 여 나 가 무 어 슬 보 렷 하 였 나 냐 갈 아 바 려 에
 진 동 할 거 시 냐 더 희 나 가 무 어 슬 보 렷 하 였 나 냐 사 각 이 부 들 어 온 것 남 온 거
 시 냐 보 라 부 들 어 온 것 남 온 자 난 왕 궁 에 있 나 니 라 클 언 즉 더 희 었 지 하 여 나
 갓 나 냐 선 지 를 보 렷 하 였 나 냐 더 희 게 일 오 나 니 이 선 지 보 담 디 한 자 각
 경 에 일 더 사 되 더 가 더 의 사 자 를 더 의 암 폐 보 더 여 더 의 길 을 예 비 한 자 꾀 의
 사 롬 이 라 너 실 노 더 희 게 일 오 나 니 부 인 이 나 온 바 는 밤 틈 레 를 버 푸 는 요 안
 너 보 담 큰 자 업 사 되 다 못 텨 국 에 지 크 키 쳐 근 사 람 이 터 보 담 크 나 라 밤 틈 레

버푸난요 안너로부터이제크도룩턴국을힘써어드려하되힘쓰난자는
 엇나니모단선사파놀법에말하여요안너새스름으러나니라만약너
 희더접히기를원하면올이니아가곳이사람이니라귀이사면드리라다못
 이세상을무어스로비길고하니어른아히가당니에안즘하탄지라그동무
 를볼디갈오도우리는데를부는데너희난쉬블거리지안코부리는우는데
 너희난슬퍼안이호니요안너는닐으리먹지도안코마시지도안이하되사
 람이일오기를터귀신을품었다하고인자난닐으리먹으며마시되사람이
 일오기를식충이죽이이니세관파죄인의벗이니라호니오직지해가그일
 노씨의를칭하나나라씨에예수능하물만이버꾼고을을척망하문회기하
 미업사미라코라신아직화라빛사다야직화라비희가온디셔버꾼바능하
 물만약투로파시돈에서버푸리사면비파죄은씨회기하여사리라다못너
 디희게일오노니판죄하난날에투로파시돈의형벌이비희보담밧기쉬오
 리라가벌남아디의을나하날에닐으리호나냐장차명부에셔터지리니너

의가 온대 시 버 풀바 능하 울만 약 소도 모에서 버 푸려 사연 오날 새 지 온 천 하
 리라 다 못 너 희게 일오 노니 판 죄 하논 날에 소도 모의 형벌이 너 회보 담 받기
 쉬오리라 후 다 라 세 예수 갈오 샤 더 아바 남 텨 너의 주야 너 아바 남을 청 찬
 후 문이 로 써 지 헤 파 총 명 한 자 기 세 는 숨 기 고 적 자 의 게 는 나 타 너 이 미 니 이
 다 진 실 된 지 라 아바 남 이 깃 거 하 미 이 깃 타 니 만 들 이 아 바 니 로 말 무 암 아 나
 룰 주 미 아 바 남 외 여 는 아 딸 을 아 는 기 업 고 아 딸 파 아 딸 이 즐 겨 타 너 기 자
 외 여 는 아 바 남 을 아 는 자 가 업 나 니 무 론 신 고 하 는 자 파 무 기 온 거 슬 친 자 는
 너 게 나 아 오 라 너 희 룰 쉬 이 물 주 리 라 너 의 의 의 을 지 고 너 게 의 오 문 너 가 온
 유 하 고 겸 손 하 미 니 너 희 마 암 에 쉬 이 물 어 들 거 시 너 의 의 의 온 심 고 너 의 짐 온
 경 하 니 라

맛 더 복 음 테 십 이 장

그 씨 사 밧 일 에 예 수 밧 틀 령 하 는 더 테 자 바 곱 과 곡 석 이 삭 을 따 먹 으 니 바 리
 시 업 이 보 고 갈 오 더 너 의 테 자 하 는 바 가 사 밧 일 에 합 당 치 아 타 하 니 예 수 갈

오샤 더너희다 빛파 밧 좃는 자 비곰 풀셔 여 행한 바 물외 이 지 못하였나냐 엇
 지 하나 남의 공애 들어 가던 설한 석을 먹어 사니 이 석은 티파 좃는 자 난 합당
 치안으 되오 직제 사안하니 또 놀법에 제사가 성전에 안식일에 범한 거시 죄
 업다 하를 오이지 못하였나냐 너희게 일오니 여 괴된 보담 큰 자이사니
 니 공홀코져 하고 제사코져 안이 한다 하니 너희만 약이 물안 즉 죄업는 자의
 죄명치안으리니 인자도 사 밧일에 주라 하고 이 여 괴로 물셔 나 티의 회당에
 들어 가니 한나 손 들은 자 잇기 날혹이 물어 갈오 뒤 사 밧일에 곳치 물버 풀미
 합당하 노하 문뜻에 죄코자 하미라 예스갈오 샤 더너희가 온 뒤 누가 양이 이
 서사 밧일에 응커리에 싸지면 잡아 너지안으랴 사람이 양보담 얼미나 귀하
 냐고로 사 밧일에 션을 행하미 합당하 니라 하고 이 여 그 사람의 게일오 샤 더
 손펴락을 하미 퍼치니 곳소복하 여 말은 손파 갓 탄지라 바리시 인이나 아가
 예수망하기를 노모 하니 예수알고 괴로 물셔 나니 사람이 만이 좃거 날모 두
 곳치고 못사람을 명게 하여 나타나 지 말나 하니 션지 이 시아의 일은 말이 너

15
종을 보라 너의 선배야 너의 사랑하는 바 마암에 깃분자라 너의 령으로써
주리니 너가 판죄로써 외방 사람의 게보하니 닷토지안으며 들리지안코 소
리가 걸이에 들리지안으리니 라 상한 갈을 썩지안코 너 뛰어난 것을 쓰지안코
판죄로 하여금이 괴게 하를 기되리니 외방 사람이 또한 그 일홈을 헨 남으리
라 하미 응험 하다 라 써여 귀신 부터 쇠 병과 병크리 된 자를 다 리고 오미 예수
꽃치니 병어 리 발 하 고 보 니 못 사 례 이 혼 나 갈 오 뒤 이 다 빛의 후에 나 하니 바
리 신 인 이 듯 고 갈 오 뒤 이 귀 신 을 쫓 으 미 귀 왕 발 시 불 노 저 안 이 미 안 이 나 하
니 예 수 그 뜻 을 알 고 쓰 오 사 려 나 각 이 스 사 르 닷 토 면 멸 망 호 고 을 파 집 이
스 사 르 닷 토 면 서 지 못 하 나 나 각 약 사 탄 이 사 탄 을 쫓 으 면 이 는 스 사 르 닷 토
미 니 그 나 라 이 엇 지 써 서 라 너 가 만 약 발 시 불 고 써 귀 신 을 쫓 으 면 너 희 자 식
은 뒤 로 써 쫓 으 라 고 너 희 를 판 죄 호 리 라 너 만 약 하 나 님 의 령 으 로 귀 신
을 쫓 으 면 곳 하 나 님 의 나 각 이 너 희 게 님 호 었 나 나 라 엇 지 능히 용 사 의 집 에
들 어 가 물 건 을 탈 취 하 는 뒤 만 저 용 사 를 결 박 지 안 코 그 침 을 탈 취 하 람 로

더 부러 함의 안 난 자는 나를 더 격 하미 요나 로 더 부러 거 두지 안 난 자는 헤치
 미 니 라고 로 니 너 희게 일 오 노 니 무 론 죄 악 과 참 남 이 사 람 을 사 하 되 노 직 령
 을 참 남 하면 사 치 못 하 고 말 고 쓰 인 과 를 치 난 자는 사 하 되 노 직 령 노 써 성 령
 을 치 는 자 는 이 세 상 파 오 는 세 상 에 사 치 못 하 리 라 혹 남 글 조 게 하 여 그 열 음
 을 조 게 하 고 혹 남 글 못 되 게 하 여 그 열 음 못 되 게 하 류 열 음 으 로 써 남 글 알 미
 라 독 사 의 자 식 아 너 희 악 한 데 엇 지 능 히 선 을 말 하 라 마 암 에 념 신 거 슬 입 에
 말 하 나 니 선 한 사 례 온 싸 은 바 선 으 로 말 무 암 아 선 을 발 하 고 악 한 사 람 은 싸
 은 바 악 으 로 말 무 암 아 악 을 발 하 나 니 라 너 너 희 게 일 오 노 니 판 죄 하 는 날 에
 사 람 의 말 한 바 허 언 을 국 문 하 리 니 더 너 희 말 노 써 올 으 물 의 것 고 또 너 희
 말 노 써 죄 를 명 하 나 니 라 하 니 이 여 두 어 선 비 파 바 리 시 인 이 더 굽 하 여 갈 오
 더 우리 가 선 상 의 징 조 를 보 고 저 하 나 이 다 하 니 더 굽 하 여 갈 오 사 더 간 악 한
 세 상 에 징 조 를 구 하 니 선 지 요 나 의 징 조 외 여 는 징 조 로 써 주 지 안 으 리 라 요
 나 가 삼 일 삼 야 를 구 리 의 비 에 이 슌 갖 치 긴 자 도 또 삼 일 삼 야 에 사 속 에 이

사리라니니위사람이판죄할씨여이세상파함씩늘어그죄를주문터요나
의년호무로써회키호기니요나보담터한자여기잇나니라남방터왕이판
죄할씨여이세상파함씩늘어그죄를주문터디극으로붓터와셔소로몬의
지혜를들으미니하물며소로몬보담터한자여기잇나니라하고터려온귀
신이이무사람의게나와사막에노닐어편안을구하다가엇지못하고이
갈오더너나온바집으로도라가리라하고닐으리크집이종오하고쓸어슈
리하물보고이여행하여또닐굽귀신저보담악한자를리고다거기들
가거하니그사람의후이전보담터옥심하니이악한세상이또한이갓타니
라하다라예수뭇사람의게말할씨여그어맘파동성이밧게셔서말호고저
호미혹이갈오더주의어맘파동성이밧게셔서더부러말하고저하난이
하니^{四十六}답하야갈오샤되니가너의어맘이며니가너의동성이냐하고이
손을펴테자를갈아쳐갈오샤되너의어맘파동성을보라무론너의아밤하
날에게신의의뜻을행호는자가곳너의동성파누이파밧너의어맘이니라

하다라

맛더복음테십삼장

이 날에 예수 집에 나가 히변에 안즈니 허다한 사람이 모여나와 오느니라 고
 로 비에 올라 안즈니 못 사람이 두 턴에 서거 날이 비사로써 열어가지를 말
 하여 갈노샤 더 종사 해치나 사나가 해치나 니라 해칠새 여길에 서러진 거스
 신가 날으리 먹고 들식 식리 토박한 데서 러진 거스 그어음이 속기 발하구 후
 이 김지 안으미니 히가니 쏘인 즉 썩리 업사 무로써 말으고 가식에 서러진 거
 슨가 식가 왕성하도 짓늘으고 죠흔새 여서러진 거스 결실이 후빅 곱 후속 심
 곱 후속 심 곱이 되니 귀이사 면들으라 하니 테자나와 갈오더 이 비사로써
 못 사람의 게 말하누엇지 니 잇가니 합하여 갈노샤 더 턴국의 비결은 너희를
 알게 하고 너희를 수지 안이 하문⁺ 론 잇는⁺ 작난 주어 넘지 게 하고 무론 업는
 자 낯 잇는 바 것지 앓나 니라 고로 너 비사로써 말하문 그보와도 보지 못하구
 들어 도듯 지 못하여 세 낯지 못하을 인함이니 이사야의 말이 일노 말이 너희

들은 무로써 들어도 세 닷지 못 하 고 보 무로써 보 와 도 아 지 못 하 문 이 뵈 성 이
 마 암 이 둔 박 하 며 귀 가 얼 유 이 들 으 며 눈 이 스 사 로 닷 거 시 니 눈 으 로 보 고 귀
 로 툃 고 마 암 에 세 다 라 도 리 여 너 마 꺾 칠 가 접 퍼 한 다 기 응 험 한 지 라 글 어 나
 너 희 눈 이 복 이 문 코 미 요 너 희 귀 가 복 이 문 들 으 미 라 너 실 노 너 희 게 일 오 나
 니 열 어 선 지 파 올 는 사 례 이 너 희 보 는 바 를 보 고 여 하 되 보 지 못 하 고 너 희 듯
 난 바 를 듯 고 저 하 되 듯 시 못 하 였 나 니 고 는 종 자 헤 치 는 비 사 례 너 희 들 으 라
 무 론 텃 국 의 도 를 듯 고 세 닷 지 못 하 여 악 한 거 시 글 으 리 그 마 암 에 헤 친 바 를
 앓 는 거 시 이 길 에 헤 친 거 시 요 들 식 시 리 에 헤 친 거 손 이 도 를 듯 고 꺾 즐 거 밧
 으 되 오 직 속 에 썩 리 가 업 서 잠 간 잇 다 가 도 를 위 여 환 란 파 군 박 을 맛 너 면
 이 여 새 리 세 고 시 에 헤 친 거 손 이 도 를 듯 고 세 상 에 녀 네 파 직 들 에 미 후 이
 그 도 를 짓 늘 너 결 실 차 못 하 는 거 시 요 조 후 사 에 헤 친 거 손 이 도 를 듯 고 세 달
 아 쏘 결 실 이 후 빅 곱 후 십 곱 후 십 곱 되 나 나 고 쏘 비 사 례 버 푸 러 일
 오 샤 뒤 텃 국 의 사 례 이 조 후 종 자 를 그 밧 테 헤 치 고 사 례 잘 썩 여 원 슈 가 와 셔

감복이를곡석^三 온너^二헤치^一간^二깃^一다니^三어^二음^一이^三새^二발^一슈^二호^一여^三그^二감^一복^二이^一
 가^三또^二한^一보^二이^一나^三니^二라^一턴^二쥬^一의^三종^二이^一와^三여^二광^一오^二디^一쥬^二의^一남^三은^二조^一훈^二종^一자^三를^二받^一테^三헤^二
 치^一지^二아^一앗^三근^二잇^一가^三엇^二지^一하^三여^二감^一복^二이^一가^三잇^二는^一잇^三가^二갈^一오^二디^一워^三슈^二가^一호^三엇^二나^一니^三라^二
 종^一이^二갈^一노^三피^二오^一리가^三셔^二색^一고^三저^二하^一나^三이다^二호^一니^三갈^二오^一디^三말^二나^一감^三복^二이^一를^三새^二다^一가^三
 밀^二새^一지^三쇼^二들^一가^三점^二푸^一니^三두^二가^一지^三를^二용^一남^三하^二여^一갓^三치^二자^一리^三여^二백^一거^三들^二셔^一여^三닐^二으^一려^三
 너^二갈^一군^三의^二게^一말^三하^二여^一만^三져^二감^一복^二이^一는^三거^二두^一워^三묵^二거^一써^三불^二사^一르고^三오^二직^一밀^三온^二너^一곡^三
 간^二에^一모^三으^二라^一하^三리^二라^一쏘^三비^二사^一를^三버^二푸^一려^三일^二오^一샤^三되^二턴^一국^三이^二한^一알^三게^二자^一종^三자^二를^一사^三
 롬^一이^二취^一호^三여^二밭^一테^三헤^二침^一갓^三타^二니^一이^三각^二식^一종^三자^二에^一지^三극^二기^一져^三그^二되^一자^三린^二즉^一모^三단^二치^一
 소^二에^一셔^三거^二남^一글^三일^二너^一공^三중^二에^一식^三가^二와^一그^三가^二지^一에^三깃^二드^一리^三나^二니^一라^三호^二고^一쏘^三비^二사^一를^三
 말^二하^一도^三턴^二국^一이^三누^二룩^一을^三부^二인^一이^三가^二저^一다^三세^二말^一갈^三부^二에^一두^三워^二고^一로^三이^二발^一함^三갓^二다^一하^三
 다^二라^一이^三논^二다^一예^三수^二비^一사^三로^二써^一못^三사^二롬^一의^三게^二말^一하^三고^二비^一사^三안^二위^一즉^三아^二못^一알^三도^二안^一이^三
 히^二니^一션^三지^二의^一말^三이^二니^一입^三을^二벌^一어^三말^二을^一하^三여^二창^一세^三썩^二오^一누^三로^二신^一긴^三일^二을^一다^三발^二기^一해^三
 처^二리^一라^三호^二미^一응^三함^二하^一다^三라^二이^一에^三수^二못^一사^三롬^二을^一써^三나^二집^一에^三들^二어^一가^三니^二테^一자^三나^二이^一

와 같오던 밧테 감북이 이 비사를 가라쳐 주소셔 하니 예스 같오샤 디 초 혼 종
 차 해 치는 자는 인자 요 밧튼 세상이 요 초 혼 종 사 난 턴 국의 아 달 기 요 감 북 이
 논 악 한 자 의 아 달 이 니 감 북 이 헤 치 난 원 슈 는 미 귀 요 거 들 셔 는 세 상 마 즈 막
 이 요 갈 군 온 턴 사 니 감 북 이 룰 모 와 불 에 살 으 드 셔 세 상 마 즈 막 에 또 한 이 갓
 타 니 인 자 사 자 룰 보 님 여 그 나 라 가 온 더 셔 것 치 게 하 나 것 파 무 법 하 는 자 를
 모 와 화 리 에 터 저 그 구 세 이 곡 절 치 하 리 니 그 셔 모 을 온 사 룰 은 그 아 바 님 의
 나 라 에 셔 광 지 가 히 갓 타 리 니 귀 이 사 면 들 어 라 턴 국 이 부 비 룰 밧 테 간 직 함
 갓 타 여 사 룰 이 만 년 즉 감 추 고 즐 거 워 돌 아 가 잇 는 것 을 다 파 라 씨 그 밧 들
 사 고 또 턴 국 이 당 사 가 조 혼 구 술 을 구 함 갓 타 니 한 나 감 귀 한 구 술 을 만 년 즉
 돌 아 가 잇 는 바 룰 다 파 라 씨 그 거 슬 사 고 또 턴 국 이 그 물 갓 타 니 바 다 에 처 모
 단 물 쇠 기 룰 모 와 차 면 두 턴 으 로 슬 어 너 여 안 저 초 혼 거 손 모 와 클 으 게 담 고
 못 된 거 손 밧 게 버 리 나 니 세 상 마 즈 막 이 또 한 클 어 하 여 턴 사 가 올 온 자 의 가
 온 더 로 좇 차 악 한 거 슬 갈 나 니 여 화 리 에 터 지 리 니 그 곳 세 이 곡 절 치 하 리 라

이룰너희다세닷나야갈오려클어하나이구하니갈오샤더이려면선비가
 현국의테자된자드한침주인이고으로식것파날근거슬집에너임맛타너
 라하다라예수^{五十三}바사룰다하고그곳을써나고향에닐으려회당에셔가^{五十五}치
 니못사람이경동하여갈오더이사람이엇시이지해와능가미깃나야이주
 의아말이안이냐^{五十七}그어말이마러압이가이냐그동형이아곱파요시와시몬
 파유다가안이냐^{五十七}그누이가우리근체에잇지안으냐이엇지이룰어덧나야
 하고^{五十七}이여거리세우니예수프오샤다션지가본토파본가외여논공경차안
 으이업나니라하고그곳에능하물만이형치안으논사롤덜이밋지안이미
 다라

맛더복음데십사장

셔여군왕헤롯이예수의소문을들듯고그신하덜에갈오더이^五는밤팀레버푸
 는요안나가숙으무로부터산교로이능한일을행한다하다라헤롯이그동
 상비림의쳐헤로다로써요안나를잡아옥에가도문요안나갈오다^五이부인

을 취하는 거시 합당차와 타하미니 헤롯이 죽이고져 하되 유익 못보 성을 무
녀 취하는 요안너를 선진 술알미라 맛참 헤롯의 싱일에 헤로다의 딸이 압페
녀 춤추니 헤롯이 기거하여 여말너는 것주기물 밍세로 발키니 녀의가 어
맘의 취기물 듯고 갈오더 밤 틈 레버 푸난 요안너의 머리를 쇼반에 노와 주소
쉬하니 왕이 근심하나 클어나 밍세 하엿고 또 함씩 가진 자를 위하여 명하여
주라 하니 사룸을 보너 여요기녀의 머리를 옥에 써 버셔 쇼반에 담아다가
녀의를 주미고 어맘의 게 가져가니 그테 자닐으리 죽음을 취하여 장사하교
예수의 게가 보하니 예수 듯고 비에 올라 그곳을 썬나 그 옥기 들어가니 못사
룸이 듯고 모단교을 노부터 보힘으로 좃다 라 예수나 아가 허다한 사룸을 보
고 어업비베겨 병잇는 사룸 곳치고 날이 저물미테 자나아와 갈오되 이느들
기요셔가 이 무지너 여사니 청컨 뉘사 랑을 헤쳐 촌가에가 먹을 거슬사 먹
게 하소서 하니 사수 갈오샤 더가 게 말고너 희가 주워 먹이라 테사 갈오더 우
리어 괴잇난 거시오 직씩다 샷리 파교기 두리니 이다 하니 갈오샤 더가 저오

라하고 이 처릇 사람을 명하여 풀에 안지우고 썩다 샷기 빠고 기 두기 돌 취하
여 하늘을 올라 리 축슈하고 세 여 테 자를 주니 테 자 못 사람을 주미다 비 부루
게 먹고 남은 부수 렷이 룰 열 두 땅 지 에 치고 먹은 자 녀 인 따 열 인 것 외 여 수
가 오 천 이 다 라 예 수 못 사 료 을 헤 치고 쳐 하 여 테 자 를 위 거 비 에 올 나 만 저 터
전 두 텡 게 언 더 가 라 하고 못 사 료 을 헤 치고 그 은 키 산 에 올 나 비 다 니 날 이 저
물 미 호 을 노 거 괴 잇고 비 는 바 다 가 온 기 셔 바 료 이 순 치 못 흥 여 물 결 에 끈 고
하 는 지 라 사 경 에 테 자 예 수 바 다 를 발 부 물 보 고 경 동 하 류 피 물 인 가 말 하 여
올 올 하 여 불 으 니 예 수 곳 같 오 샤 더 마 암 노 으 라 니 로 다 무 셔 워 말 나 하니 피
들이 더 답 하 여 갈 노 되 파 연 주 면 나 룰 명 하 여 물 을 발 바 주 의 게 나 아 가 게 하
소 셔 하 니 같 오 샤 더 오 라 하 미 피 들 이 비 에 너 렷 물 을 발 바 예 수 의 게 나 아 가
다 가 바 료 을 보 고 무 셔 워 싸 지 렷 하 미 불 니 같 오 더 주 나 룰 구 완 하 소 셔 하 니
예 수 이 여 손 을 펴 말 이 여 같 오 샤 더 밋 이 미 적 은 자 야 엇 지 의 심 하 나 나 하 고
비 에 올 으 미 바 료 이 자 니 비 엇 사 료 이 절 하 여 갈 오 더 실 노 하 나 남 의 아 딸 이

라 하더라 ^{三十一} 건배여 짓너 사릿지 경에 날으니 ^{三十二} 그곳 사람이 알고 사람을 사방에
보너 여모 단병잇는 자를 다리고 와서 ^{三十三} 예수의 옷 단까지 기만 구하니 만진 자
는 다 낫더라

맛 더 복음 예심 오장

예루살임에서 선비 파바리 식인이 예수의게 나아와 갈오더니 ^{三十四} 히테 자엇지
넷 사람의 뉴턴하물 범하나냐 하는 말을 씌여 손을 씻지 안으미라 ^{三十五} 더함하
여 갈오샤더니 ^{三十六} 히는엇지 뉴턴하물 위하여 하나님의게 명을 범하나냐 하나
님이 갈아샤되 ^{三十七}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갈오샤되 ^{三十八} 부모를 공손하는 자는 죽
인 다 하려사되 ^{三十九} 오직 너희말하기를 ^{四十} 관약 사람이 부모의게 말하되 ^{四十一} 너게로부
터 나의할거속례물을 들엇다 하고 ^{四十二} 그 부모를 공경치 안이하리니 ^{四十三} 이거시너
히 뉴턴으로써 하나님의게 명을 깨하는 거시라 ^{四十四} 거죽 선을 하는 자야 ^{四十五} 이사야
가 밀이 너희를 낚아 친 거시 참되다 ^{四十六} 그말에 갈오되 ^{四十七} 이뵈성이 입슈으로써 나
를 공경하나 마암은 너게 멀고 ^{四十八} 너나 공경이 너게 절하문 ^{四十九} 가라 친바는 사람

의명한바미라하다라 예수뉘사람을볼너갈오샤되듯고씨다려라입으로
 들어가는거시사람을더러이지안코인직입으로나오나거시사람을더러
 이나나라하니테자나아가갈오되바리시인이이말을듯고거리세는줄아
 나니잇가예수되답하여갈오샤되무론남기너의턴부가시무지안온니손
 그썩리를썩부리니너쳐두라턴쇠경이인도하는쟈니쇠경이쇠경을인
 도하면두리다웅겉이에싸지나나라하니피들이되답하여갈오되이비사
 로써우리롤가라쳐주소셔하니예수갈오샤되너희도오히르세맛지못하
 나냐엇지사람의입으로들어가는거시비롤지너며츄간어너려지는줄을
 명백지못하나냐오직모단입으로나난거슨그마암으로말무암아블어사
 램을더러이논거시되기악한싱과파살인파간음파오입파도적과거죽간
 증과참남이모두마암으로말무암아블어나이거시사람을더러이고오식
 싯지안온손으로써밤먹는거슨사람을더러이지못하나나라하다라예수
 그곳을제나투로파시돈시병에블으니그싸게가즈의부인이와볼너갈어

더 주라 빛의 고에 눈나를 염비베기 소서니 살이 귀신이 부터 심히 괴롭다
 하니 예수 더 담하 지 안 거 날 데 자 불으 려 청 하여 갈 오 더 부인이 뒤 에 서 불 오
 니 보 너 소 서 하 미 예 수 더 담 하 여 갈 오 샤 더 니 불이 불 빛 든 거 손이 살 일 집 에
 망 한 양 의 계 관 불으 미 라 하 다 라 두 인 이 나 아 와 질 하 여 갈 오 더 주 나 롭 도 라
 보 소 서 하 니 예 수 더 담 하 고 갈 오 샤 더 아 히 의 섹 을 가 이 롭 주 는 거 시 올 치 인
 타 호 니 부 인 이 갈 오 더 주 아 클 어 하 나 다 못 탁 알 에 너 려 진 부 수 러 기 롭 가
 이 도 먹 었 나 이 다 하 니 예 수 더 담 하 여 갈 오 샤 더 부 인 아 밋 미 크 니 너 의 원
 갓 치 하 리 라 하 나 니 노 북 더 살 이 나 온 지 라 예 수 그 곳 을 써 나 가 니 너 의 원
 에 불으 리 산 개 올 나 안 즈 니 허 다 한 이 룬 이 나 아 오 는 데 안 잔 방 이 파 쇠 경 파
 병 얼 이 파 병 이 파 밋 얼 어 가 지 병 잇 난 자 롭 다 리 고 와 서 그 발 알 에 두 밧 곳 치
 니 못 사 람 이 병 얼 이 갈 함 파 병 신 온 선 함 안 잔 방 이 함 함 파 쇠 경 이 발 근 거
 슬 보 고 지 괴 히 베 거 이 살 일 하 나 님 을 병 화 하 다 라 예 수 그 데 자 롭 불 너 갈 오
 샤 더 너 못 사 람 을 어 염 비 베 기 난 거 시 티 의 가 나 파 사 흘 을 함 쇠 호 여 먹 을 거

시업사니너 녀를을주려보니고져안으^ㄴ 점푸건딘중노에서핍곤할가^ㄴ
미라하니테자갈오도들여셔엇지씩을어터뭇사롬을비부르게먹일잇가
예수갈오샤디너희씩멧리나잇나냐갈어^ㄴ씩^ㄴ급기파져근고기멧리잇
나이다하니이^ㄴ뭇사롬을명^ㄴ여쌍에안지우고닐급기씩파고기롤가지
고축슈하고세^ㄴ여테자롤주미테자가뭇사롬을주니^ㄴ뭇사롬이비불우게먹
고남은부수리기롤닐급광지에치우니^ㄴ먹은쟈^ㄴ녀인파얼인것외여사천인
이다^ㄴ라예수^ㄴ뭇사롬을헤치고비에올나마가단지경에닐이다^ㄴ라

맛디복음테십육장

바리시와삿두기인이와셔예수롤시험^ㄴ여청건디하날에칭쥬로써갈아
히라하니예수^ㄴ디답^ㄴ여갈오샤되너희일이기롤져물기여하날에불근빛
치이사면날이말그리라^ㄴ하고아^ㄴ적에하날이불고^ㄴ풀^ㄴ으면너희일이기롤오
날^ㄴ풍우가잇^ㄴ갓다^ㄴ하니너희^ㄴ하날의^ㄴ형상^ㄴ분간^ㄴ할^ㄴ주롤^ㄴ알고^ㄴ오^ㄴ직^ㄴ엇^ㄴ셔^ㄴ칭^ㄴ쥬^ㄴ노
를^ㄴ오^ㄴ나^ㄴ냐^ㄴ간^ㄴ약^ㄴ한^ㄴ세^ㄴ상이^ㄴ칭^ㄴ쥬^ㄴ롤^ㄴ구^ㄴ하니^ㄴ오^ㄴ직^ㄴ션^ㄴ지^ㄴ요^ㄴ나^ㄴ의^ㄴ한^ㄴ칭^ㄴ쥬^ㄴ밭^ㄴ게^ㄴ보^ㄴ징

조를보이지안것다하고이여셔나가니테자터견두턴에닐으리썩가져오
 기를니젓는뒤예수갈오샤되삼가바리시와삿두기의누룩을방비하라하
 니테자사사로히의론하여갈오뒤우리썩을가져오지안으미라하니예수
 알고갈오샤되밋으미적은쟈야엇지썩가져오지안으무로써사사로히의
 론하나냐너희오히려명되지못하며엇지우천인에썩다삿기로부수리기
 멧광지남은거슬싱각지못하며또사천인에닐굽기썩으로멧광지남은거
 슬싱각지못하나냐너말한바가썩을위함미안이요바리시과삿두기의누
 룩을삼가하라너거슬엇지명되지못하나냐하니테자방야흐로예수의말
 한바가썩의누룩을삼가하라미안이요이바리시과삿두기의판줄쳐댓다
 라예수기샤라비립비지경에닐으리그테자게물어갈오샤되사람의말하
 기를너인자를귀라하다냐갈오뒤혹밤틈례를버꾸는요안니라하고혹이
 니아라하고혹예리마라하고혹션지의한나이라하다이다하니예수갈오
 샤되오직너희는나를귀라하냐니시몬피들이되담하여갈오뒤영성하나

남의 아물기 리쓰토라 하니 예수더 감하여 갈오샤 더시몬 발요나가 복이
 사문혈기가 너를 보인거시안이 요나의 하날에 계신 아바님이 보이라
 또네게 일어나 너는 피들이 너가 너의 포회를 이 판석에 세워음부의 권
 세가 이기치 못하게 하리라 너의 열쇠로써 너를 주나니 물은 너의 사에
 미온거슨 하날에도 또한 먹이고 사에 노인 거슨 하날에도 또한 노이나 니라
 하고 이 보테 자물 경계 기를 자기 기리쓰토라 사람의 게고치 말나 하고
 일노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제가 라치기를 자기 반다 시에 루살임에 가장
 노파 체사장과 연미의 게고상하고 또 죽이물 보왔다가 삼날만에 날나라 하
 니 피들이 비르소 밧하며 말뉴하여 감오되 주아 올치 안으니이다 이거시
 잇지가 게고 소셔하니 예수돌아 보와 피들 게 갈오샤 더사탄은 물너가라 베
 나를 것치게 하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몸 밧지 안코다 못 사람의 뜻을 몸 밧난
 다 하고 예수더 자기 갈오샤 더나를 좃고져 하니 자난 심적들을 지고 좃추라
 심명을 구워 켜 하니 자는 망하고 나를 위하여 심명을 망한 자는 어드러니

사롬이 만약 텨 하롬다 엇고 싱명을 힐든쟈 무상유의 함이 이사리요 사롬이
 무어스로 싱명을 막구려 인자가 야밤의 영화로써 텨사파 함의 장차 남호며
 각 사롬의 흥한바를 인칼호 감푸리라 실노너희게 임오나 니어괴션쟈
 혹죽지못호며 인자가 그나라에 남호물보리라 하다라

맛더복음데 십칠장

엇시를 시너여 예수피들파 야곰의 동침요 안히롬다 리고그유기놈똥산게
 늘으리 압페구변화호며 낮치벧나기가 히갓고 못시 벌뵈호며 광명갓고모
 쇼파기 니아가 낮타나더 브러알호니 피들이 일너갈오되 주아우리가곳에
 잇난거시 죠으니 즐기시면 막세간을 지을데 한나온쥬를 위하호한나온모
 쇼를 위하호한나온기 니아를 위하갓나이다 말할셔여 각근구름이 님피고
 구름속으로 소리가 서일오샤 더이논나의 사랑호는야말이요갓거호난바
 니더를느려라호는지라 데사듯고 업더며 심히호려워호거날에수압호며
 민저갈오샤 더닐어나고두려워할나호며 데가눈을드니 한사롬도보이지

간코오직 예수만이라 산에닐일셔여 예수등히여갈오샤되인자죽으무
 르다시닐지못호지니본바로 사람의게고치말나하니테자무리갈오
 뒤션비가말호기를이니아가만려오리호문엇지미포예수되답호여갈
 오샤되이니아가실노크으리무단일을회복케호리라너희게일오나니
 이니아가이무닐으리사람이야저무호고임의로써되접호여사니이갓치
 인자도또한사람의게고상호리각하니테자방야흐로예수말한바가법팀
 레버푸는요안너를갈아치느줄을세닷다라못사람의게닐으니한사람이
 예수압페나아와살어갈노되주이너의아말을어염비베기소서테지롤
 노고상호여자로불에너머지물에너머지나이다테롤다리고테자의게
 나아가도능히곳치지못호타이다하니예수되답호여갈오샤되밋지안코
 귀역한제샹아너너희파함씩호난지가멏셔며너희를참는지가멏셔냐아
 히롤다리고나의게나아오라호고예수최망호위귀신이나가니아히가의
 여섯날지라테자사사로히예수의게나아가갈오되우리는귀신을쫓지못

하는것지미요예수갈오샤 더밋으미저근연고라니실노디히게일오나니
 밋으미저사종자만큼이서도곳이산을명호여터점으로올마가라호여도
 또한올고아올나능치못할바가업나니라호다라예수가니너에주류할셔
 여테자게빌오샤 더인자가장차사룸의손에붓치워죽인바되였다가삭일
 만에닐갓다하니테자심히근심하라가빌남에닐으미세밧는피들의
 게나아와날오더희선싱이세를밧치갓나냐하니갈오더올타호고집에
 들어가뒤예수간져물어갈오샤 더시몬아베뜻이언더호냐세상에군왕이
 누를향호여세를밧치라나냐자괴의말을향호나냐외방사람을향호나
 냐호니오되외방사람이니이다호미갈오샤클언즉아물면할거시
 르러오직터로거리셀가접푸니베바다게가박시질호여만려잡는피기의
 입을열면은니돈늘어들거시니가져다나파너의세를호여밧치라호다라

맛디복음테십팔장

그셔여테자예수의게나아가갈오더턴국에뒤가크니잇가호니예수한아

히를 물너가온 뒤셔 우고 갈오샤 더니 실노 너희게 일오나 니너희 변복호져
이아히갓지안 으면 텃국게 들어가지 못하나 니고 로스샤 르나 초하 여이아
히갓탄속 텃국에그미되나 니너희론 너일홈으론 써이런 아히한나를 드점
호는 자는 곳나를 더점호미니 너희 약호를 밋는 아히를 것치게 호는 자는 차라
리 큰 망들을 그목에 달고 김판바다게 싸지미유의 하니라 것치물위호져이
세상이 진한라 더기 것치는 거시부득불이사되오직 것치게 호는 자는 진화
나라고 호손파발이 너를 것치게 호견 곳셔가 버리고 차라리 병신파저난
발고영성에 들지언 텃두손파두발노긴 더새지지안는 불에 더지우지말너
간약눈이 너를 것치게 호면 텃곳쳐버리고 차라리 한눈으로 영성에 들지언
텃두눈으로 너희의 불에 더지우지말너 삼가이아히에 한나를 경야비기
말너 너너희게 일오나 니너희의 텃사가 하날에셔 늘너의 아밤하날에게 신이
의나츄보나 니너희의 백쌍양잇는 샤룸이 그한나를 힘으면 너희 뜻에엇더간
나너아직 아흔아홉을 산에셔셔나 그일은 거슬 찾지안으랴 마약차즈면 너

실노니 희게 일오나니 그한나양으로 위하여 즐거오미그힐치안은 아후아
 좁삭모담터하니라기갓치너희하날에게신아바님도이아히에한나망호
 기를원치간사니라약동심이베게회를어드면가서터공용할셔고갈
 호여들이면동심을구워하고듯지안으면한두사람을볼너다이삼위의입
 으르쳐간중하고터덜을듯지안으면피회에고호고피회를듯지안으면곳
 위방사롭파세관파갓치베기라너실노너희게일오나니무론너희사에미
 온거슨하날에도미오고사에노인거슨하날에도또한노이리라너또너희
 게일오나니만약너희두사람이한바임으아뭇거슬구하던지너의하날
 에아반이가일너즈류이삼인이너의일함으로사에모이미유너가또한그
 가온이사미라호당라피들이나아가갈오더주아동심이너게죄를어드
 면너몇번을샤호리잇가늘굽번호리가하니예수갈오샤더닐말이늘굽
 번이안이라다못늘흔늘굽이라면국이군왕이신하로너브리회게함갓
 타니회게할셔여후천만낭신자룰다리고오니감풀힘이업사미주인이

명하기롭고 몸싸쳐 자빠 밧잇는바를 다 파라 감푸라 하면 그 신하가 업디여
 절하여 갈오디 주아 나롤용남하시면 님장차다 감푸리이다 하니 주인이어
 업비베겨 늦고그 빧슬샤하여 주미그신하나가다 가한듯반은 열낭진자를
 만니겨목을 잡고 갈오디 비빧슬감푸라 하미그 동반이 업디여 구호여 갈오
 디나롤용남하면 샷차 감푸리라 하니 터허락지안꼬 옥에가 돕고 빧슬감푸
 가하미모단 동반이 보고 심히 근심하여 그 일노써 주인의게 고하되 주인이
 터를 볼디갈오디 악한 신하야 비가 너게 빧슬을 구하기로 나 단샤하여 주엇난
 디너의 동반을어 업비베기 기롭니가 나롤어 업비비 김갓치하미맛당치안
 으냐하고 주인이 노하되 옥니롤맛쳐 빧슬다 감는데 볼이나니라 만약 너희
 못사름이 동심을샤치안으면 님의 텨부가 너희보기를또한이 갓치하리라
 하다라

맛디복음데 십구장

맛참에 수살을다히고가니 나롤셔나 유디지명을단기롭맛게 볼이미하다

한사함이 좃추니 거기서 곳치다라바리시인이와서 시험하여 갈오더엇터
 한연고던시쳐물너보너미합당하니 잇가하니 예수되답하여 갈오샤되조
 화하는이가 처음에 남너를 시어사니고로 갈오되 사람이 부모를 써나미그
 처로크부러고합하여 둘이 한몸이 된다하여사니 글을너희외오지 못하였
 나냐 그리면 두사람이 간이요 한몸이니고로 하나님이 싹한바를 사람이 논
 으지 못하나니라 하니 갈오더 그런즉 무소가 우리를 병하게 각 남문서를 주
 고너보너라 하문엇지미노하니여수갈오샤되 무소가 너희마암완픽하물
 위하여너희를 용납하여 쳐물너보너라 하여사되다 무티초에는 글엇지안
 으니라 너희게 일오나니 오입에 연고안이로 써쳐물너보너고말오쳐물
 취하는자눈음난을 핏하미요너보너쳐물취하난자도또한음수를 핏하미
 라하니테자갈오되 사람이 쳐파이갓타면 장기가 지안오미유의하다하거
 날예수갈오샤되 무사람이다 이말을 밧지 못하되 오직 타난자야 능히 문심
 너의고제도 잇고 사람의게 배운고제도 잇고 천국을 위하여 스사로되논고

제도이사니 능히 밧으면 밧으미라 하니 셔여 일위 아히를 다리고 예수에게
 와너 그우게 손을 안찰하고 빌고져 하미테 자최망하니 예수갈오샤 더얼인
 아히를 용납하여 너게 나오게 하고 금지말나 하문 텨국이 이런 사람이 미라
 하고 이여 손을 그우에 찰하고 거기를 썬나 다라 한 사람이 나와 갈오되
 스승아 너 맛당히 무삼 선을 행하여 영성을 어드리요 하니 예수갈오샤 더엇
 지 썬너게 선을 못나 노한 분션한이가 잇나 니라 다 못비가 영성에 들고져 하
 면게 명을 직기라 하니 갈오되 무어사니 잇가 예수갈오샤 더 살인 말며 음논
 치 말며 도적 칠 말며 망녕 된간증 말며 너의 부모를 공경하며 근쳐 사랑하기
 를 제몹 갖치하라 하니 쇼년이 갈오되 너이 거손과 직기 엮난 더사 큰 무삼 부
 족하거시 잇나 니 잇가 하니 예수갈오샤 더 비온전하고져 하면 거셔 잇는바
 를 다과라 가난을 전직즉 보비가 하늘에 잇나 니 또와셔 나를 주추라 하니 쇼
 년이 이말을 듯고 근심하고 가무치물만은 연고다라 예수테가 의게 갈오샤
 더 너실노 더희게 됴오나 니 부자가 텨국에 들어가기 열이 오니라 니 또너희

계일오나니약다가는구녕에지니기가부자턴국에들어가기부담쉬고
 니라하니테자듯고심히경동하여골오되큰언즉뒤능히구완하리잇가하
 니예수테자롤보와갈오샤되사람의게능치못되하나님의게는다능하
 니라하니피들이디함하여갈오되우리가다바리고주를좃차사니오리무
 어슬하리요예수갈오샤되니실노크히계일오나니나를좃는자나다시
 벽할씩여입자가영화한자리에스리니너희도또한열두자리에안저이
 살일열두지와롤죄기하라문기^{二十九}의일흥위하여집과동성파누이파
 부모파자식파턴장을세는자는창차되비나밧고또영성을깃부하리라클
 어나만저가된자논민이후이되고후이된자논만저가되나니라
 맛던복음테이십장

턴국이집주인갓타니아적에가나씩군을어더포도원에가나니라미명에
 하루은한돈식결단^이여포도원에들어보되고사시에나가사람이당년에
 서서놀을보고갈오되너희도또한포도원에들어가라니너를줄바를주리

라 하미 그 사람이 이 여들이 가고 나제파 신사에 또 나가 그리하고 유시에 나
가 또한 사람이 서시물 보고 끌오되 비히엇지 충일 놀아 여기섯 나야 하니 갈
오노 우리를 찾난 사람이 업나이다 하미 갈오되 비또한 포도원에 들어가 라
하고 전역에 날으러 동산 주인이 집의 게 갈오되 싸군을 불너 싸을 줄데 후
에 온거스도 좃차만겨온자 새지 밋츠라 하니 유서에 온자 모두 한돈 식밭으
미만겨온자 터밭을 줄노 비헛다가 또한 한돈 식밭아 가지고 주인을 시비하
여 갈오되 우리난 종일 슈고하여 덤게 벗쏘이고 후에 온자 눈잠시 일호 엿논
더 우리 파갓치 한다 하니 주인이 그 사람이 일너 갈오되 벗아 너를 상적
차안은 거시 비하루 한돈 식결단치 안았나야 비씩시나가지고 가라 너가 후
엇자 도비 파갓치 하는 거스너의 하고져 하는 바니 너물건으로 써너의 하고
져 하는 바가 합당치 안으냐 너가 선을 하난 데 비눈을 불키나야 하니 이갓치
후이 된자만겨가 되고만겨된자 후이 되리라 하더라 예수 예루살림에 올라
가 노테 사사로히 열두테 자물드리고 길에서 갈으샤 더 우리 예루살림에 올

나가인자가 제사장파션비의게 팔니 왕죽울 죄를 명하여 외방 사람의게 못
 력욕을 보며 첫직으로 치며 심직물에 못질하였다가 삼일만에 보니 라
 라이여 시비도의 아달의 어망이 그 아달 패함쇠에 수의게 나야 와 절하며 한
 가지 일을 구하니 예수 갈오샤 더 베풀어 삼거슬고져 나야 갈오더이 두아 달
 노하여 곰주의 나라에 안시 올테 한나 온자 견에 하고 한나 온우 견에 호 소셔
 하니 예수 더 답하여 갈오샤 더 베풀어 구하노 바 물베아 지 못하니 너의 마닐 잔
 을 네 능히 마시랴 갈오되 능히 하갓나 이다 하니 갈오샤 더 너의 잔을 네 실노
 마실진 된다 못 너의 작우에 안으리니 너가 주미 안이요 오직 너의 아바니가
 누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리라 하니 그 열테 자듯고 형테 두 사람을 노하니 여
 수 볼너 갈오샤 더 외방군왕이다 사리물 주하고 그 더 신이 권세 쓰는 술을 너
 희아 나니 너희 중에 논글어 치안으리라 너희 중에 크고져 하는 자는 너희
 인이 되고 슈가 되고져 하는 자는 종이 되나니 입자가 와서 사람의 섬기 줄 밧
 지안코 사람을 섬기고 또 못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 속하리라 하다 라에

리코를셔날셔여허다한사롬이쫓는데두쇠경이길역에안저예수치난다
 물듯고볼너갈오되주다빛의후에는우리론어염비베기소서하미뜻사롬
 이잠잠하라칙망하니쇠경이터크게볼너갈오되주다빛의후에는우리론
 어염비베기소서하거날예수머무르고볼너갈오샤되너희나다려우어슬
 하고져나나갈오되추아오리눈을발게하소서하니예수어염비베거그는
 을만지미즉시발가예수를쫓다라

맛더복음테이십일장

예루살임에갓가온벧바게의감남산에늘으러예수두테자를보너여갈오
 샤되너희암촌에가셔나귀하나민데져근나귀거지잇는거슬풀어쓸어오
 되만약뜻논자이사면말하기를슈가쓰갓다하라겟곳보너리라하니갓
 타면선지의말이손의쌀하고하기를다의왕이닐으니여은유하어나귀파
 저근나귀를낫다하미응험하라테자이어가명한바갈치행하어나귀파
 처근나귀를잇글며웃슬그우에눅코예수타니열이사롬이혹자괴웃슬길

에 페며 후남 가지 뵈 버여 길에 페고 쟁 후에서 못 외 성이 불너 갈오 리고 빛
 의 후에 난 안복이라 주의 일흠루 탁호 온차는 축수 할보고 지극기 돕편
 데는 안복이라 하다 라 예수에 루살림에 든 성이 온 성이 소동하여 갈오 되
 이논귀고 하니 못사론이 갈오 되가 너의나 살잇션사라 수라 하다 라 예수
 하나 남의 면에 들피가 당사 하논차 파돈 밧구논차 의탁자 파비들기 파논차
 의의자를 밀치며 쳐너 쏘차 갈오 되 파 록게 너의 집은 비논 집인데 너희가
 써강도의 소혈을 만친고 하다 라 쇠경파 안잔방이가 면에서 예수의게나 아
 오미예수 못치니 모단제나 장파 셴비가 그괴이 한일히 합파셔어 린아히가
 성년게셔 불너 팔오 되나 빛의 후에 난 안복이라 할보고 유감하여 예수께
 갈오 되 터의 말한말을 들엇나니 예수 갈오셔 영글엇타적자 파 밧밧
 먹논아히 입으로 찬찬히 물은사라 하사 나이 말을너희오이 지못
 하였나 나하 고이여 셔성나오도 나가의다 나에 불으리사 고 잇튼말아적에
 다시 성이 들어가 불너 비곰편사라 길역에 화파 남우를 보고나아가니 열

음은 업고 오십 남간 잇는지 남게 일드 갈오샤 다 너 영이 열음이 밋치지
못하리라 하미 일도 부터 남기 곳 말으니 데자 보고 괴괴히 네겨 갈오셔 무화
파남 엿시 즉시 말으나 니 깃가 하니 예수 다크고 갈오샤 너 실노 너 희
게 일오 나 너 희의 심치 안코 밋으면 못 능히 이 남게 행한 일 파간 갓 탈선
안이라 이 산을 명하여 올마 바다 에 터지라 하여 도 또한 일우리 니 밋셔 여 무
론아 못 거슬구 단 지 어 드리라 다 라 예수 성탄 에 들어와 사랑을 가라치
는데 제사장 파민간의 장노 나 아와 갈오셔 비 무삼 권세 도 이를 잉여 누기
이 권세를 주더냐 하니 예수 답하여 갈오샤 너 또한 너 희게 한 말을 들을
거사 니 너 희너 게고 하면 너 또한 두 삼 권세로써 이를 잉여 들너 희게고 하니
라 요 안 너의 법 틈 레가 어 디 잇나 나 하날 노 말 무엇나 나 사 롬으로 말 무엇나
냐 하니 못 사 롬이 사 사 로 히의 론 하여 갈오셔 만 약 하날 노 말 무엇다 하면 너
갈오셔 클어 면 엿지 밋지 안나냐 고 사 롬으로 말 무엇다 하면 우리 비 성을
무셔 워 하 분 비 성이 요 안 드 료 선 지 라 하니 이 여 자 답하여 갈오셔 아 지 못

호노라함의 예수갈오샤 되나도또한무삼천세로써의 행하물너희게일
 으지안간오라한사람이두아말이잇는데 맛아말의게가갈오되포도원
 가셔오날일하라하니 대답하여갈오되안이가가나이다호고후에누이처
 가고들직아말의게가또이가차말하니 대답하여갈오되가가나이다호고
 후에가지안아사니너희뜻에어디거시아밤의뜻을 좃나냐갈오되맛아말
 이라예수갈오샤되니실노너희게일코나니세판파창가너희보담만져
 하나님나라에들어가^{三十一}안거가올는도루너희게나아가미너희는빛
 지안아사되세판파창^{三十二}는빛엇고너희또이거슬보고도후에누이처써밋
 지안으미라너희다시비사를드리라하집주인이동산에포도원시무고바
 주로두르고가온데술를웅거리물과고토둔을셔워^{三十三}공인을세주고이여타
 향게갓다가괴약에밋쳐그종을^{三十四}공인의게보너여실파를쉬^{三十五}다함의^{三十六}공인
 이그종을잡아한나은치고한나^{三十七}는죽이고한나^{三十八}오들^{三十九}오써치니또다^{四十}른^{四十一}종을
 보너미전보너더^{四十二}함의^{四十三}공인^{四十四}의^{四十五}행사가^{四十六}베가^{四十七}타니^{四十八}후에^{四十九}그^{五十}아^{五十一}말을^{五十二}보너^{五十三}며^{五十四}뜻^{五十五}하

기름기의 아말을 공경하리라 하다니 공인이 그 아말을 보고 사사로히 갈오
뒤이 논장손이니 죽이면 산업을 우리 가지리라 하고 이어 잡아 동산 밭에
쫓차 죽여 사니 동산 주인이 날으는 것 지켜 공인을 체지하랴 갈노되 이 악한
사갈을 망하고 동산을 모른 공인을 세 주워 그 책론 안찰하여 실파를 맞치라
한다 하고 예스갈 노샤 뒤 성경에 석슈가 버린 돌이 짐통이 첫들을 일우고
이 주로 말무암아 우리 눈으로 괴기히 베키나 물너 희오이지 무하였나 너
너희게 일오나 니하나 남의 나라를 너희게 아사 열우 맞치논 빈성을 주리니
무론 이 돌우에 설어 지는 자는 세이지고 이 돌이 그우에 설어 지는 자는 갈기
리리크 하니 제사장 파바리쉬인이 그 비사를 돌듯고 자기 불살아 치는 줄을 알
고 잡고 저하되 빈성을 무셔워하루 빈성이 예수를 선지라 하미 다라

맛 뒤 복음 테이 십이 장

예수 또 비사를 풀버 푸릭 못사 룬의 게 갈 노샤 뒤 텨 국이 한 남군 갖타니 그 아말
을 위하 여 혼연 을 비 설하 고 종을 보니 여 청한 바 자를 연 석 게 나 아 오 라 하니

國¹ 國² 이 노³ 國⁴ 안⁵ 國⁶ 國⁷ 國⁸ 國⁹ 國¹⁰ 國¹¹ 國¹² 國¹³ 國¹⁴ 國¹⁵ 國¹⁶ 國¹⁷ 國¹⁸ 國¹⁹ 國²⁰ 國²¹ 國²² 國²³ 國²⁴ 國²⁵ 國²⁶ 國²⁷ 國²⁸ 國²⁹ 國³⁰ 國³¹ 國³² 國³³ 國³⁴ 國³⁵ 國³⁶ 國³⁷ 國³⁸ 國³⁹ 國⁴⁰ 國⁴¹ 國⁴² 國⁴³ 國⁴⁴ 國⁴⁵ 國⁴⁶ 國⁴⁷ 國⁴⁸ 國⁴⁹ 國⁵⁰ 國⁵¹ 國⁵² 國⁵³ 國⁵⁴ 國⁵⁵ 國⁵⁶ 國⁵⁷ 國⁵⁸ 國⁵⁹ 國⁶⁰ 國⁶¹ 國⁶² 國⁶³ 國⁶⁴ 國⁶⁵ 國⁶⁶ 國⁶⁷ 國⁶⁸ 國⁶⁹ 國⁷⁰ 國⁷¹ 國⁷² 國⁷³ 國⁷⁴ 國⁷⁵ 國⁷⁶ 國⁷⁷ 國⁷⁸ 國⁷⁹ 國⁸⁰ 國⁸¹ 國⁸² 國⁸³ 國⁸⁴ 國⁸⁵ 國⁸⁶ 國⁸⁷ 國⁸⁸ 國⁸⁹ 國⁹⁰ 國⁹¹ 國⁹² 國⁹³ 國⁹⁴ 國⁹⁵ 國⁹⁶ 國⁹⁷ 國⁹⁸ 國⁹⁹ 國¹⁰⁰

나님의 도를 밝아치며 사육을 편히 치안오라 의모르사 육은 취치안민
 줄아나니 세를기 살배기 밧치며 맛당하며 맛강치안은 것 선심 의 뜻이 었
 한시 우리게 고호 소셔 하니 예수터의 악을알고 고평오샤 더기 죽션을하난자
 야 잇지하여 나를 시험하나냐 그세 바침은 돈을나름보이려하니 이여은돈
 한푼을가져다주니 예수갈오샤 더기 모상이 누며고 호가 누냐 고평오되기 살
 이라 하미예수갈오샤 더기 살의 거스르사기 살배기 밧치고하나님의 거스
 르써하나님의게 밧치라 하니 더덜이듯고고히 베키며가다라 샷두기인
 에말은다시닐미엿다 하는지라 그날에나아가론어 고평오되 선심남모쇼가
 일너사되 사람이아말^{三十五}이시죽으면 동심이그쳐를취호며 형을위하여자
 식을낫는다 하여사니^{三十五}리게헤테크굽사육이잇는데맛자가쳐를취호고
 죽으미자 식업시쳐를동심의게기첫는데 돌^{三十六}직섯지로닐굽직새지또한그
 려^{三十七}하고터인^{三十八}이또죽어사니^{三十九}다시닐쳐여닐굽사육중에이터인^{四十}이누의쳐가
 되리잇가^{四十一}문다취하미라^{四十二}예수더담호며 고평오샤 더기 고평에일은바파하나님

의 능간을 아지 못하니 물너다다시 늘서 여는 시집도 안이 가고 장기도 안어
 가고 오직 사자 하날에 이슴 갖타니 라 죽은 자다 시 볼 물의 론 할 진던 하나님
 이 너희게 알구인 거슬 오이지 못하였나냐 말이나는 암라 함의 하나님이 삭
 의 하나님 야곰의 하나님이 라 하여 사니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간
 이요 오직 산자의 하나님이 라 하나 못사 롬이 듯고 갈아 치물 경동하다 바
 리 신인이 예수가 샅 두리기로 구치 못하게 하였다 물듯고 모이니 그중
 에 한나 법관이 예수를 시험하려 오디 션 심 남 놀림에 너 경게가 크니 잇
 가 하니 예수 갈오샤 뒤 마암과 성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라 이 경게가 크고 테일이 요 들진 논 근 처 사랑하기 룬 제 몸 갖치 하라 난 거사
 니 이 두 경게는 놀법파 션시의 강령이라 하다 라 바리 신인 오이 셔여 예수물
 어 갈오샤 뒤 너희 뜻에 키리 스토가 었터 하냐 뒤의 후에냐 하니 갈오되 빛
 의 후계라 하니 예수 갈오샤 뒤 빛의 령으로 었지 키리 스토를 슈라 칭하였
 나냐 일너사 되 주가 너의 주게 일오기 룬 너우 편에 안저 너의 위슈로 써베

발아래 두물기 다리라 하여 사니고로 다윗이 기리쓰토를 쥬가 칭하여 사니
엇지 그 후에야 하미능히 한 말을 더 답하는 자 업고 일누부터 감히 다 시 못논
자 업다라

맛더복음테이 십삼장

예수 못 사람파 테자의 게일너 갈오샤 더연 비파바리시인이 모쇼의 휘에 간
저 무론너 희게 명하논 바를 행하져 직기되다 못의 길을 안찰하여 히치 말
나 더논 말노써 호히치 한이하나 나 더덜이 충하고 맛기 열여 온 짐으로써
묵거 사람의 억기에 늦코 오직 자기는 한 손가락도 즐겨 동치간이니 그 형사
가 다 사람의 게보이 고쳐하고 그 귀를 넘게 하여 그 옷단을 크게 하며 연석에
상자에 안세 파 회당에 수자 파 장니에서 문안 파 사람이 램비라 칭하는 거슬
조와 하니 오직 더 희는 램비라 칭하물 밧지 말나 비희스 성은 하나 이요 너 희
논다 형테라 싸에서 사람을 아바니라 칭치 말나 너 희아 밤은 하나 이니 귀히
날에 잇는 자라 소한어 튼이라 칭호물 밧지 말나 너 희어 튼은 하나 이니 귀히

리쓰토라 너희중에 곤자는 너희하인이 되나니 스사르놈은 체하는 자는 나
 자지고나 존재하난 자는 놉파제니라 거 죽션을 하는 선비파바리시인아
 너희지화문사롬의암폐셔턴국을닷고스사로들어가 리안코들어가려하
 는자도너희허치안으미라 거 죽션을 하는 선비파바리시인아 너희지화문
 수룩을편함하며한사롬으로동도를보들고 후에터쿨디옥엣사롬을안들
 미너희보담곱시나하미라너희죄경인도하는자지화라갈오되사롬이턴
 을갈아쳐밍세하면일업다하고오직턴안에금을팔아쳐밍세하면감난
 하니너희민충이죄경아어너거시크냐금으로셔성물일호턴이냐너희도
 광오되사롬이단을갈아쳐밍세하면일업고오직단우에례물을팔아쳐밍
 세하면감난다하니너희죄경아어너거시크냐례물이냐례물노써성물을
 일운단이나고로단을갈아쳐밍세하면단파그우에잇는거슬다갈아치미
 요터를팔아쳐밍세하면단파그안거하는자를갈아치미요하날을갈아
 쳐밍세하면하나님의자리파그우에안존자를갈아치미라 거 죽션을 하는

선비파바리시인아디희직화분회향파근치롤열에한분을들이고다못놀
 법에중한공도파온혜파선심기치니그리면이거슨맛당히할바요그거
 슨기치지안을바니쇠경인도하난쟈야모구는흘니고약더는삼기나니라
 거죽션을하난선비파바리시인아직화분비희잔밤밧견은정게하고안에
 는탈취하논것파분홍미가득하미라쇠경바리시인아만저안악을첫게
 하고셔그밧글정게호리라거죽션을하난선비파바리시인아너희직화분
 비희우됨을희게함갓타니밧견은보기쥬오되안악은숙은사롬외세파터
 리온거시가득하니이갓침비희밧견으로사롬의게올은것갓타되안악은
 거죽션파무법한거시가득하미라거죽션을호논선비파바리시인아너희
 직화문션지외우됨을셔우며의인의우됨을슈리하고갈오되만약우리가
 우리조상적에이서사면터덜노터부러션지의피곤흘의게안아사리라하
 니이갓침비희사새로간증하여션지죽인쟈의후예라하고비희조상의행
 에차라비암파독샤의자식아엇지능히다옥어판죄를피하라이런바로션

지파지혜한사롬파선비를너희게보낸미죽인자파십지들에못질한자도
 잇고회당에서척직질한자도잇고이성으로터성에군박한자도이사니올
 은사롬의피쌍에흘은거시죄가너희게로도라고올은사롬아빌의피로
 부터너희성년단사히에서죽인비바카야의아달사카라새지르^{三十五}리거실
 노너희게일오나니이길이다이세뒤네돌아가리^{三十六}작에루살임예루살임아
 베가선지를죽이며보닌사자를돌노쳐죽인자야년열어번너희자식모^{三十七}
 기를암탈이식기를나리아레모움갓치^{三十八}되오직너희가하고져간으니너
 희집이갓쳐황상이되리라너희^{三十九}게일오나니일노부터너희나를보지못
 하고말하기를슈의일함을브탁^{四十}호여오논자복이있다할새새지닐으리라
 하다라

맛디복음테이십사장

예수턴에나가^{四十一}히^{四十二}나너테라나아가^{四十三}턴의집을갈아치니^{四十四}답^{四十五}호여갈오샤
 되너희이거시다보지못^{四十六}하나나^{四十七}실노너희^{四十八}게일오나니^{四十九}쟝^{五十}차여^{五十一}괴^{五十二}들을^{五十三}돌

우에 깃치지 안으리라 케수감남안에 안즈니 테자사사로히나야과갈오되
어느새여이일이이사며연성보국할적파세샹마즈막에무순징조가이슬
잇가하니예수달달^고여갈오샤던너희삼가조심^하여각사람의게들볼바
되지말자장년에 열어한사람이너일흥을^느름스고와갈오던너가키리쓰
토라호며만은사람을틀너게하리라너희쥬차싸음합파싸음호는소문을
듯고경동치말나이일이맛당히늘오되오직사로마즈막에아리라호고빅
성이빅성을^다적호며나카이나라를더적하며흥년지며진이열어곳에
이사리니이거시다진호의시초^와사람이너희를환란에삿티며너희를죽
이더너희의일흥으로위호여만민이게미우물보며만은사람이너붓치를
겨터피차에서로히호며미워호며거죽선지^만이늘어만이^{사람}을틀너
게호고드^만은사람의이정이점점차지문무법하미더호리니필경것참논
차논구원을^고이다^국복음을^던하에^던호여만민의게기증호고후
에마즈막이늘으리니너희선지다^늘이말한비포학호고미운물건이성다

에셔사물보리니오이난자명백하리셔여유더에잇난자이산에피하며집
 우에잇난자너려와집적늘을취치말며밭에잇난자도와옷슬취치말나
 그날에잉튀한자파젧매이난자진화이사리니너희빌어겨울파사밭일거
 도망하기를면하문그셔여큰환란이이사니이갓트문자효이리에언고령
 코후에도또십사리니그날을덜디안아사면구완할자업슬겨슬쎌자롤위
 하피이날을덜니라그게너희게일은난자가기리쓰토가여괴잇다터기
 잇다하여도밋적나문차차거죽기리쓰토와거죽연지가늘어큰징쇼
 와괴히하일늘버푸러그쎌자도틀니게하면곳하리라너희미리일오나
 니사롬이그희게살일이기를들게잇다하여도나가치말며밀실에잇다하
 여도밋지말나번기가동으로와세편에서번쎌하난것갓치인자남하미
 또이갓타니죽엄잇는데쇼로기모이난이라이셔신고환란이후에곳히가
 거무며말이벗출가지못하며별이하날노셔러지며하날능간이진동하리
 니그셔여인자의괴호가하날에넛타나리셔여각뉴사람이모두가슴을터

올고도 입자가 능간 큰 영화로써 구름을 타고 물보리니 텃사자를 보니
나팔의 큰 소리가 멀리 및 처젠 파를 사방의 텃구으르 좃차 모우리니 무화
르 좃차 비사룰 비외 가지가 연하여 남피 뛰면 너름 샷가 운술을 아나니 이 갓
치너 희이 룬다 보면 인자가 갓가 와 후에 잇난 줄을 알나니 실노너 희게 일오
나니 이 채다가 지너 지 못하여 이 거시다 일우고 텃디가 다 지너가 도너 팔은
지너 지 못하리니다 못그 날그 시룰 사룸이 아지 못하코 텃사 파아 달도 또한
아지 못하되 오직 아 밤이 아나니 인자가 남할척이 노아의 날 갓트리니 홍슈가
천날에는 사룸이 노아의 비어 올은 날에 이르러 부지불각에 홍슈가 날으
리 못사 룸을 멀하여 사너 인자가 남하미 또한 이 갓타리니 그 쟈여 두 사람이
밭에 잇는 데 하나 우거 두고 한나은 것치고 두게 짐이 망질하노데 한나은 거
두고 한나은 것치리니 고도 쟈여라 너 희슈가 어느 쟈에 날을 줄을 아지 못하
리니 민약 짐슈인 이 멧경어 도적이 날을 줄 알면 아스 쟈여 그 짐을 굴시 파지
못하게 하여 슬줄크 희아는 니고도 너 희등디 하라 뜻하지 안을 쟈여 이 자

가 볼 으리니^{四十五} 너^{四十六}가 한 종이 밋브 총뵈 되여 주인이 그 집을 맞쳐서 료 안찰하여
양식을 줄자^{四十七} 나^{四十八} 주인이 볼 으리 이 갖치 힘호 물 보고 그 종이 복이라 하나 니라^{四十九}
너 실노 너 희게 일오 나니 주인이 그 잇는 비 료 다 맞치^{五十一} 그 관약 악한 종이 뜻호
기를 주인이 터지 오리라 호고^{五十二} 이 여 저의 동무를 치며 주직 으르 더 부림음식
호는^{五十三} 더 뜻호지 안온 날 파아 지 못호는 석여 주인이 볼 으리 심히 텨 거 주션호
는 자 파한기 세 두면 그곳에서 꼭 절치 호나 니라

맛더복음테이십오장

턴국이 비전던 처녀 열이 등을 들꼬 나가 신량을 따 즘 갖타니 그 중에 다 으손
민총이 요다 으손 총명호니 민총이 난 등을 들꼬 기름을 가지 치아 기 총명한
자^{五十四} 난 등을 들꼬 또 그릇 세 기름을 가져사니 신량^{五十五} 이 터 자 미다 조다가 자 난 더
반야^{五十六} 게 소리 테 갈오 크 신량이 야 나와 마즈라 하미 못 처녀가 이 여 다 볼 어 그
등을 정제이 호 난 더 민총이 가 총명한 자의 게 갈오 더 우리 등이 새 텨 가니 베
기름을 논아 달나 호 미 총명한 자 더 답호 자 갈오 더 저 푸전던 베 파나 쓰기가

모자리가사니차라리저라에가사라하니사레갈써여실량이닐으리등더
 예비한처녀파함씩연석에들어가고분을다드미그예의처녀가후에닐으
 리갈오되주아주아를열소서하니더잡하여갈오사더니실노니희게
 일오나니너희를아지못한다하니카고로써라버희그날그시를아지
 곳후턴국이한사람이타향에가려후종덜을볼너잇누비크써막치난
 데각인의직간히로혹은오천냥혹이천냥혹한천냥하고가니그오천을뵈
 온사가가당사하쳐오천냥을넣기고그이천냥뵈은자또한이천냥을넣기
 고오직천냥뵈은자가싸을과고그은을간직하니올이미그주인이돌아와
 종덜노더부러호게하논더오천냥뵈은자또은오천냥을가지고와갈오더
 주나를천냥맛쳤는더또오천냥을넣엇나이다하니주인이갈오더쥬타
 션호고뵈어은종아미자근을에충성하니니큰일노써버를맛치리니베쥬
 의즐기논더들어가라하고이천냥뵈은자또닐으리갈오더쥬나를이천냥
 맛쳤는더또이천냥을넣엇나이다하니주인이갈오더쥬타션호고미어은

종아^三자근일계^三충성하니 너가 만은 일노써 너를 맞치리니 비주의 줄기는
 이^三들이 가라하고 천^三냥 밧은 자또느으리 갈오되 주너 줄을 텅원한 사름이 줄
 아근 거시 썩리지 안은 곳에 너 두며 헤치지 안오 곳에 모오려하니 고^三너 무
 셔워호여 주긴은 일천냥을 싸에 간직호여 사니 이제 주인 의히 더로 잇나 이
 다 하니 주^三긴이 더^三호여 갈오되 악하고 게^三은 종아 비너가 썩리지^三오 곳
 에 거 두며 헤치지 안은 곳에 모오난 줄알면 맛^三당히 너은 으르셔 돈^三밭구난 자
 의게셔 워싸가 나브을 썩^三그 본파이 로^三엇지 아게 호였나 니라 하며 그^三천^三냥
 을 아사다 그 만^三냥 잇는 자^三를 주라 호^三무 잇는^三자^三는 주어 너^三케 하고 업^三슨 자^三는
 그 잇는 비^三새지 아시^三미^三고 쓸^三데 업^三슨 줄을 밧^三견어 두^三운 데 너^三쫓^三차^三거^三셔이
 꼭^三절^三차^三하^三리^三라 호^三다^三라 인^三자^三가 영^三화^三로 썩^三을 썩^三여 모^三단^三텨사^三로 학^三쇠^三그 영^三화^三의
 위^三에 안^三저^三만^三민^三을 그^三압^三페^三모^三우^三고 이^三비^三갈^三나 너^三이 기^三를 양^三치는^三자^三면 양^三산^三양^三갈
 날^三너^三임^三보^三치^三면 양^三은 오^三른^三견^三에 두^三고 산^三양^三은 자^三견^三에 두^三나 니^三이 비^三왕^三이 오^三른^三견
 에 잇^三난^三자^三덜^三어^三끌^三오^三되^三너^三희^三노^三아^三밤^三이^三쫓^三슈^三하는^三자^三이^三나^三라^三은^三것^三부^三라^三자^三고^三이

리에너희로위하여 등되하루니 곱플적에너희나를몹이며너가할적에너
 희나를찾기며너가나가네되어실적에나를머무르며너가버스면너희나
 를입피며너가병하면너희나를돌아보며너가옥에이슬적에너희나의게
 나아노미라하니이여올은자디답하여갈오되주어느씩여주가곱플적에
 맥이머갈할적에맛기며어느씩여주나가네되어실적에머무르며버서실
 적에입피며어느씩여주가병하며주옥에이슬적에돌아보왔너잇가하면
 왕이디답하여늘으기를나실노너희게일오나니이닌한나미말동식의게
 이일행함미곳너게행함미라하고또자견에잇는자의게갈오되너희욕담
 한쟈는나를써나미귀와그사쟈가등되한영이새지지만불에들어가라
 하문너희나곱플적에맥이지안코갈할적에너희나를맛기지안코나가네
 되어실적에너희나를머무르지안코버서실적에나를입피지안코병하며
 옥에이슬적에너희나를돌아보지안으미라하면너덜이디답하여늘으기
 를주어느씩여주곱푸며갈하며너가네되며버스며병하며옥에이사물

보고 섬기지 안터니 잇가 하면 다행하여 갈오 되 너 실노 너 희게 일오 나 너
 한나 이미 말의게 헝치 안으미 곳너 게 헝치 안으미 라 호 고 이 사 례 들 은 영 이
 행벌 하 노 데 늘 어 가 고 올 운 자 는 영 싱 에 호 나 니 라

맛 더 복 음 데 이 심 독 장

예수 말을 다 하 고 데 자 게 끌 오 샤 더 이 들 이 갖 참 지 니 여 님 은 절 인 줄 너 희 아
 난 바 니 인 가 가 팔 니 워 못 질 하 리 라 호 구 라 그 색 여 못 제 사 장 파 셴 비 파 뵈 성
 의 장 노 가 제 사 장 리 야 바 의 원 에 모 여 예 수 잡 아 죽 일 게 홀 을 도 모 하 며 다 못
 팔 하 되 절 기 에 안 을 거 시 점 푸 건 된 뵈 성 이 분 요 할 가 하 노 라 호 다 라 예 수 비
 다 나 뵈 남 풍 호 는 시 몬 의 집 에 잇 는 데 한 부 인 이 옥 함 에 극 귀 한 기 름 을 담
 아 가 지 고 나 아 와 예 수 밤 먹 는 디 그 멀 이 게 부 우 니 데 자 보 고 노 하 여 갈 오 더
 엇 지 이 거 슬 허 비 하 나 나 이 룰 파 라 사 면 볼 쇼 할 터 이 니 바 가 난 을 건 지 리 라
 하 니 예 수 알 고 끌 오 샤 더 엇 지 이 부 인 을 피 롬 가 나 나 너 니 게 셴 을 희 한 거
 시 가 는 한 자 는 들 너 희 파 함 식 하 되 나 너 니 희 파 들 함 식 무 하 미 라 더 기 름 을

너 몸에 못나거든 장사를 예비하느니라 너 실노너희게 일오나니 텃
 에 어느 곳에 이복음을 텃던 하던 시이 부인의 항한 비로 말하여 생각하라 하
 락이여 열두테 자의 한나잇가 롯유다가 제사장에게나아가 갈오되 너
 를 무어슬 주고저 하면 너를 너희게 못지리라 하키이여은서른 냥을 물나
 주니 일노 못터유다 예수 부칠기미로 찾다라 늘옥금하느절 첫날에 테자
 수의게나아와 갈오되 우리 어느 곳에 넘느절을 예비하라 나니 잇가하
 니 갈오샤되 너희 성에 들어가 아무물보고 갈오되 스승이 일오되 너
 사니 테자파함씨너희집에서 넘느절을 직기리라 하라 하니 테자
 로 연석에 예비하고 천약에 넘느리에 수 열두테자파함씨 연석에 안
 며 갈오샤되 너실노너희게 일오나니 너희 중에 한사 등이 나
 니 못사롬이 심히 근심하며 한낱 식무르되 주너니 잇가하
 니 갈오샤되 너파함씨그르세손질하느자
 가곳나를 못칠자나
 비갓치가되 오직 인자를 못칠자
 는 죄화니라 그사롬이 세상에 나
 지어 음민

갖지 못하리라 하니 ^{二七} 붓칠 유다 갈오 되 셴싱 남니 니 잇가 하니 갈오 샤 뒤 네
 가 말하였다 하더라 ^{二八} 밤 먹으며 에스렉을 취하여 축슈하고 세 요 테 자 룰 주며
 갈오 샤 되바 다 먹으라 이 논 닌 신 테 라 하고 ^{二九} 또 잔을 취하여 축슈하고 테 자 룰
 주어 갈오 샤 되 너 희 이 거 슬 마 시 라 이 논 닌 약 의 피 니 만 은 사 람 을 위 하 여
 죄 를 샤 하 여 흘 닌 거 시 라 너 희 게 일 나 니 일 도 써 닌 다 시 아 포 도 남 보 에
 나 논 거 슬 마 시 지 못 하고 그 날 에 켜 처 너 희 파 함 씨 닌 야 밤 의 나 라 에 너 희
 거 슬 마 시 리 라 하 다 라 이 여 클 을 읊 고 감 념 산 에 나 아 가 니 예 수 테 자 게 갈 오
 샤 뒤 이 밤 에 너 희 다 낙 를 것 치 리 라 그 록 아 사 되 닌 양 치 난 자 나 념 양 의 무
 리 가 혜 여 지 리 라 하 여 사 니 너 가 시 닌 후 게 너 희 압 서 가 니 너 에 가 리 라 하니
 피 들 이 더 답 하 여 갈 오 되 뭇 사 람 이 주 를 것 치 나 나 난 늘 것 치 지 아 칸 너 이 다
 하 예 수 갈 오 샤 되 너 실 노 모 희 게 일 오 나 니 이 밤 말 올 전 에 베 세 번 나 를
 모 른 다 하 리 라 하니 피 들 이 갈 오 되 너 곳 주 바 함 씨 죽 을 지 언 텅 주 룰 모 루 노
 라 아 칸 너 이 다 하 고 테 자 또 한 그 러 하 다 라 이 여 예 수 테 자 파 함 씨 한 디 방 에

날으니 일흥은 깃세 마 나 같 오샤 되 너 희여 기 간 저 스라 너 티 기 나 아 가 빌
 니라 하고 이 여 피 들 파 시 비 더 의 두 아 들 을 더 라 고 가 비 르 소 근 심 하 여 나 른
 하니 예 수 같 오 샤 되 니 마 암 이 심 히 근 심 하 여 기 의 숙 갖 다 너 희 여 기 있 따 가
 나 파 함 쇠 세 라 하 고 좀 나 아 가 업 더 여 빌 어 같 오 샤 되 니 아 바 니 만 약 능 하 면
 이 잔 으 로 써 나 를 지 니 가 게 하 소 셔 그 리 나 너 의 하 고 저 하 는 비 를 좇 지 안 코
 아 바 니 하 고 자 하 는 비 를 좇 초 셔 호 고 이 여 테 자 의 게 날 으 리 자 물 보 고 피
 들 게 일 오 되 네 나 파 함 쇠 편 시 를 능 히 세 지 못 하 나 나 세 여 비 러 시 험 을 면 호
 라 마 암 은 원 하 나 몸 이 연 약 한 지 라 하 고 다 시 나 아 가 발 어 괄 오 샤 되 니 아 바
 니 만 약 이 나 를 너 가 마 시 지 안 코 지 니 가 지 안 으 면 아 바 니 의 뜻 을 알 우 미 니
 이 다 하 고 다 시 날 으 리 소 테 자 자 물 보 니 너 의 눈 이 곤 한 지 라 소 써 나 세 번 치
 발 기 를 또 한 말 갖 치 하 고 후 에 테 자 의 게 날 으 리 같 오 샤 되 이 제 는 자 며 편 안
 하 라 세 날 으 리 인 자 가 죄 인 의 손 에 붓 치 우 리 라 날 어 가 자 붓 칠 자 갖 가 왔 다
 하 니 말 할 세 여 열 두 테 자 에 한 나 유 다 가 허 다 한 사 롱 과 함 쇠 칼 과 몽 치 를 가

지고 못제사장파뵈성장노의게로오며 스승뵈친채군호를주어갈오되
 입맛추는쟈가기니잡우라호고곳예수의게나가갈오되선성님편안
 소셔호며입을맛추니예수갈오샤되벗아베온일하라호니뭇사람이곳압
 페닐으리에수를잡우미예스파함되한나이손으로칼을뺏여제사장
 의종을터그귀를썩그니이제예수갈오샤되네칼을집에뒀주후무론칼을
 동호는쟈는칼에망호나니너희뜻에너아바니게발거나를귀호여이성
 심이파예턴사를보너지못하라이갓타면성경에일은바이일이반다시
 사리라호며사니엇지응험하라이여뭇사람의게갈오샤되너희갈파몽치
 로써나를잡기를강도갓치호나너날마당성턴서갈아쳐도너희나를잡
 기안터니오직이단일호니선지의일은바응험한다호니이여모단테자셔
 나도망호다라예수를잡은쟈의슬고제사장키야바의게닐으니선비파쟈
 노가모였는지라피들이멀니예수를좃차제사장의원에들어가그굴노파
 함호안저그필경을보고차호니모단제사장파쟈노와오은공회가거죽간

증을 구하여 예수를 속이고 자하여 비록 만이 거짓 증하는 자와 엇지 못하
 니 후에 두 사람이 불으리 같오되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 능히 하나님의 면을
 핏어 사흘에서 우섯다 하였나니 제사장들이 물어 예수의게 같오되 베아롯
 대답도 안나냐 텨간증이 었냐 하니 예수 묵묵부답하거날 제사창이 갈
 오되 영성하나님을 위하여 네게 명하나니 우리가 이르라 비파연 하나님의
 아달 캐리쓰토냐 하니 예수 같오샤 텨 말하였나이다 다 못나 일오냐니 후에
 인자가 능한이 오오 문견에 일저하 날 계 구름 타고 오물 보리라 하니 이예
 제사창이 그 옷을 쓰즈며 갈오되 텨 참나한 말을 하니 엇지 다른 간증을 쓰랴 너
 희그 참나한 물들어 사니 뜻어 었냐 하니 대답하여 같오되 죽을 죄로다
 하며 이예 그 낫체 춤밧으며 주며 구치며 흑손의 닥으르려 같오던 캐리쓰
 토야 너를 심류하며 치는 자가 누냐 밀이 말하랴 하라 회들이 위에 섰 밧
 인 첫눈 데한 비자나 이와 같오되 베조한가니 니 예수 파하 의하는 자라 하니
 뭇사람이 압페셔 노루노라 하며 같오되 너희 말하는 거슬 하지 못하갓다

하고나와 한애늘로니또하비사보고함씩잇는자의게갈오되이또한나
 살잇예수파함씩잇는자반하니다시모루노라하며밍세하여갈오되니그
 사롬늘아지못하노라하고이깃고겟테선자나와갈오되베실노터과한당
 인거시베말에낫타다하니피들이비르소욕하며밍세하여갈오되니그
 사롬을아지못하노라하는데말기우는지라피들이예수들을기전에네세
 번나를모른나하물싱가하고이여밧게나가통곡하더라

맛더복음테이십칠장

아츨게제사장파빅성의장노가함씩도모하여예수들속이려하여결박하
 여쓰올고방뵈피나토의게늘으니선여스승릇친유다가예수의죄명하물
 보고후회하여그은다른냥을제사장파장노의게들우가져다주며갈오되
 너죄업슨자의성명을과라진가있다하니못사잡이갈오되우리게무삼상
 판이노베스사로강하라하니유다은을텐에더키고셔나나가쓰사로목미
 여죽우니제사장이그은을취하여갈오되이노피를판감사니고예터지미

합당치안타하고이여의론하여그온으로고장의밧를사타향사롬못는
 셔이라하니그밧를지금새지혈년이러하니곳천다예리미가일너사되필
 니물입은자의감이살일사로명헌바설은냥은을기려토고장의밧를밧구
 리니이논쥬가너게명한라하미응험하라예수방빅의압페셔니방빅
 이무리갈오되베유다인의왕이나하니예수갈오샤되말하엿도다하니제
 사장파장노가예수를송사하되더답지안으니피나토갈오되터의얼미나
 너를간승하논기슬베듯지못하나냐하니계소할말도더답지안이하미일
 노새방빅이심히기괴히비기논사라절피에방빅의규례복성을맞터죄
 인한나를뜻논데셔여일흥난외인바람바가갓터논지라못사롬이모이미
 피나토갈오되더희니다려누를뜻코자하나냐바람바나혹기린쓰트라하
 논예수냐하눈예스롬스기하야부치될알미라방빅이공당에후즈미그부
 인이사롬을시겨갈오되이올운사롬을간섬지마소서너오브숨에심히터
 로위하야고상하엿노라하더라제사장파장노가못사롬을취겨바람바를

구하고 에스롤망하라 하는지라 방벽이 못사롬터럭터럭하고 여갈오터이두
 사롬게나 다림뉘를뎡로작하냐하니 끌오되바람바라하니 피나토갈오
 터그런속기리쓰토크일것논예수롤엇덧게하라냐하니 다갈오되십지
 틀에로질하소서하니 방벽이 끌오되터무상악을헹헹엇하냐 못사롬이터
 옥불너끌오되십지틀에로질하소서하니 피나토우의함미업슬뽕안이라
 뵈성이분우하롤보고이물을취하여 못사롬의압페손을식츠고갈오되
 이올운사롬의피가너죄가한이니너희사로당하라하미뵈성이터함
 하여갈오터그피가우리와우리자손의게돌아오리라하니 이어바람바롬
 뎡고예수롤터뎡사롬을뎡터십지틀에로질하라하라 이어방벽의군사
 예수롤잇슬고공당에올오미오은영군사뎡을모와구슬베키고불근오
 슬입피며가시관을역거고머리에씨우며갈을가져다그이룬손에두며
 그압페술어희롱하여갈오되유대인의왕은편안하라하며곳터의게춤뎡
 으며갈을취하여말이올티고희롱하고그옷슬베키며그옷슬입혀십지

틀노슬고가가다가쿠리니사룸을만나니일흠은시몬이강강잉하여가셔셔
 십^三히틀을치우고한곳에붙으니일^三흠은골고다니식기즉두골잇는곳이라
 술^三에열을타맛기니예수맛보고마시자안거날십^三직를에^三질하고그옷슬
 제비하여^三노우며그곳셔안저^三의키며멀이우에죄목을쳐사되이유대왕에
 수^三라하고또두^三강도를함^三의십^三직틀에^三질하는데하나^三은자견에^三고한나
 은^三을^三는^三견^三에^三하^三다^三라^三지^三너^三가^三는^三자^三욕^三하^三묘^三벌^三이^三를^三흔^三들^三어^三갈^三오^三되^三네^三성^三년^三을^三헐
 어^三사^三흘^三에^三셔^三우^三갓^三다^三하^三터^三니^三가^三의^三를^三구^三완^三하^三라^三네^三단^三약^三하^三나^三님의^三아^三말^三이^三면^三십
 직^三틀^三노^三쫓^三차^三너^三려^三오^三라^三하^三고^三제^三사^三장^三파^三션^三비^三와^三장^三노^三도^三또^三한^三이^三가^三치^三희^三롱^三하^三여
 갈^三오^三되^三터^三다^三른^三사^三룸^三을^三구^三완^三하^三고^三가^三의^三를^三구^三완^三치^三못^三하^三니^三이^三살^三일^三의^三왕^三아^三십^三직
 틀^三노^三쫓^三차^三너^三려^三온^三즉^三우^三리^三곳^三밋^三으^三리^三라^三터^三하^三나^三님의^三의^三지^三한^三다^三하^三니^三만^三약^三하^三나
 님^三이^三즐^三거^三하^三면^三터^三를^三구^三완^三할^三거^三시^三터^三일^三오^三되^三하^三나^三님의^三아^三말^三이^三라^三하^三미^三라^三갓^三치
 못^三질^三한^三강^三도^三또^三이^三갓^三치^三희^三롱^三하^三다^三라^三낫^三즈^三로^三붓^三디^三미^三시^三새^三저^三닐^三으^三리^三오^三은^三싸^三이
 어^三덥^三고^三미^三시^三에^三예^三수^三큰^三소^三리^三로^三붙^三디^三갈^三오^三샤^三터^三이^三리^三이^三리^三라^三마^三사^三박^三다^三니^三라^三하

니시긴즉너의하느님너의하느님엇지하느냐를셔낫논엇가하미라^{五十七}겅테
 션갠듯고프오되^{五十八}터이리아를불윤다하니그중에한사름이곳히응에초를
 직과갈에셰여맛기니^{五十九}혹갈오되^{六十}용납하라이리가안구와하나보쟈하니
 예수다시크게소리를기^{六十一}며^{六十二}령^{六十三}혼을돌니니이여^{六十四}성^{六十五}년^{六十六}포^{六十七}쟝이우으르^{六十八}부터아
 레새지두^{六十九}쪽에^{七十}썩여지^{七十一}며^{七十二}싸이^{七十三}진^{七十四}동^{七十五}하^{七十六}며^{七十七}돌이^{七十八}터지^{七十九}며^{八十}부터^{八十一}이^{八十二}열^{八十三}터기^{八十四}세^{八十五}한^{八十六}성
 인의^{八十七}신^{八十八}테가^{八十九}블어^{九十}나^{九十一}예수다시^{九十二}년^{九十三}후^{九十四}게^{九十五}성^{九十六}경^{九十七}에^{九十八}들^{九十九}어^{一百}가^{一百一}간^{一百二}은^{一百三}사^{一百四}름^{一百五}의^{一百六}게^{一百七}보^{一百八}이^{一百九}터
 라^{一百一十}빅^{一百一十一}부^{一百一十二}쟝^{一百一十三}파^{一百一十四}함^{一百一十五}씨^{一百一十六}예^{一百一十七}수^{一百一十八}를^{一百一十九}직^{一百二十}키^{一百二十一}던^{一百二十二}쟈^{一百二十三}싸이^{一百二十四}진^{一百二十五}동^{一百二十六}하^{一百二十七}며^{一百二十八}지^{一百二十九}닌^{一百三十}바^{一百三十一}일^{一百三十二}을^{一百三十三}보^{一百三十四}고^{一百三十五}심^{一百三十六}히^{一百三十七}두
 립^{一百三十八}워^{一百三十九}하^{一百四十}여^{一百四十一}갈^{一百四十二}오^{一百四十三}되^{一百四十四}이^{一百四十五}는^{一百四十六}실^{一百四十七}노^{一百四十八}하^{一百四十九}나^{一百五十}삼^{一百五十一}의^{一百五十二}아^{一百五十三}말^{一百五十四}이^{一百五十五}라^{一百五十六}하^{一百五十七}다^{一百五十八}라^{一百五十九}가^{一百六十}니^{一百六十一}너^{一百六十二}르^{一百六十三}부터^{一百六十四}예^{一百六十五}수
 를^{一百六十六}숫^{一百六十七}츠^{一百六十八}며^{一百六十九}일^{一百七十}엿^{一百七十一}겨^{一百七十二}던^{一百七十三}커^{一百七十四}리^{一百七十五}부^{一百七十六}인^{一百七十七}이^{一百七十八}멀^{一百七十九}너^{一百八十}셔^{一百八十一}보^{一百八十二}니^{一百八十三}그^{一百八十四}중^{一百八十五}에^{一百八十六}막^{一百八十七}다^{一百八十八}린^{一百八十九}의^{一百九十}마^{一百九十一}리^{一百九十二}암^{一百九十三}파^{一百九十四}야
 곱^{一百九十五}파^{一百九十六}요^{一百九十七}시^{一百九十八}의^{一百九十九}거^{二百}말^{二百一}마^{二百二}리^{二百三}암^{二百四}파^{二百五}밋^{二百六}시^{二百七}비^{二百八}던^{二百九}두^{三百}아^{三百一}를^{三百二}의^{三百三}어^{三百四}암^{三百五}이^{三百六}터^{三百七}라^{三百八}저^{三百九}를^{四百}민^{四百一}한^{四百二}부^{四百三}쟈
 아^{四百四}리^{四百五}마^{四百六}뒤^{四百七}로^{四百八}오^{四百九}니^{五百}일^{五百一}흔^{五百二}은^{五百三}은^{五百四}섬^{五百五}이^{五百六}니^{五百七}예^{五百八}수^{五百九}의^{六百}테^{六百一}차^{六百二}라^{六百三}터^{六百四}피^{六百五}나^{六百六}토^{六百七}의^{六百八}게^{六百九}나^{七百}아^{七百一}가^{七百二}에
 수^{七百三}의^{七百四}시^{七百五}신^{七百六}을^{七百七}구^{七百八}하^{七百九}니^{八百}피^{八百一}나^{八百二}토^{八百三}가^{八百四}명^{八百五}하^{八百六}주^{八百七}라^{八百八}하^{八百九}미^{九百}요^{九百一}섬^{九百二}이^{九百三}시^{九百四}신^{九百五}을^{九百六}취^{九百七}하^{九百八}여^{九百九}가^{一千}들
 고^{一千一}정^{一千二}한^{一千三}보^{一千四}로^{一千五}써^{一千六}사^{一千七}라^{一千八}피^{一千九}나^{二千}토^{二千一}가^{二千二}판^{二千三}석^{二千四}시^{二千五}루^{二千六}이^{二千七}판^{二千八}무^{二千九}덤^{三千}에^{三千一}두^{三千二}고^{三千三}큰^{三千四}들^{三千五}을^{三千六}굴^{三千七}터^{三千八}묘^{三千九}는^{四千}에^{四千一}두^{四千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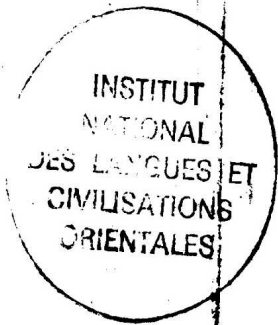
가니 막 다린의 마리암과 티엔마리암이 무덤을 뒤하되 아젓되라 이튼날은
 꽃절귀를 예비한후삼이 제사장파바리시인이 모피피나토로보고갈오
 되던인우리가 텨샤 특한자살실셔여갈오되사흘후에다시날갓다물싱
 각하니 청컨던 무덤을사흘을치키소서저푸건던그테자밤에와도적하여
 가고빅성의게일오기를터다시날갓다하면그후에틀니미전보담터하리
 라하니피토갈오되비희슈졸이이사니가셔미오잘직기라하니이여가
 군사로함씩그돌을인봉하고무덤을직기터라

맛대복음테이십팔장

사밧일후첫발기여막다린의마리암과 티엔마리암이와그무덤을보고
 자하는데이여싸이크게진동하문주의사자하날노부터너려오미니터돌
 을골니고그우어안즈니용모가번세갓고옷시누운갓치희미직기논잠무
 셔우무로셀며의죽게되니사자부이게일터갈오되비희논무셔워말나
 니니희가십지틀에동질한예수찾는줄아나니여괴잇안고그말파갓

님앗나니 너희와 주장사 하였던 곳을 보고 쌀니가 그테 재게 일으기를 틈죽
 으루로 못터 블어 너희 보담만져가니 너에 가시워 그곳에서 보리라 하라 너
 너희게 일넛나니라 하라 하니 부인이 무덤을 쌀니셔 나무서 워하며 또 그
 즐거워 호여 테 재의 게 보하리 들이 갈셔 여 수만셔 여 갈오샤 더 편안하
 하니 부인이 압괘가 그 발을 안고 절하니 여 수갈 오샤 더 무셔 워 말고 가 너의
 동심의 게 보호고 가니 너에 가게 되나 룰 보리라 하라 부인이 갈셔 슈졸
 에 후의 성에 들거가 제사장의 게 거닌 바임을 보하니 터 털이 장노파 함의
 모여 의론호여 허다한은 전으로 쇠군사를 주며 갈오되 네일이 기룰 보리 잘
 셔여 그테 재가 밤에 와도 적호여 갖다 하라 만약 방벽이 깨들니면 우리 권하
 여 너희를 구사케 하리라 하니 군사기 온을 밧고 그부탁한 뒤로 호미이여
 이말이 유취인가 온더 헤여 턱이 날셔 지블으더 열한테 재가니 너에 가
 수갈 한 산에 블으려에 수를 모고 곳 절하 나클어나 사로의 후호는 자이사
 니에 수압페 나아가 갈오샤 더 터의 모단 권세를 나를 주어 사니고로 너희

가 만민으로니 四六 國자를 인등며 아 밤과 아 날 보 성 신의 일 품으로 써 반 립 레 를
베 푸 리 라 니 니 희 계 명 한 거 술 터 밀 을 팔 으 처 다 직 키 개 호 연 니 들 님 희 파 합
쇠 하 여 세 상 과 즈 막 어 날 이 리 라 하 니 라



강명편

법림례논 예수피에드논법이니물노써하나니라
할례논 예수전에유대국피에드논법인데시조암라 함이서윤
비라

사밧일은미닐귀에할부식쉬이논날이라

님년절은이살일되성이이굽국에나오던셔물싱각하날이라
장막절은유대국취석이라

유딤논이살일의남에국병인데로마에부투니라

예루사림은유대국셔올이라

성년은 하나님계절하며제호논곳인데예루사림에잇나니라
사마라논유대북편인데로마의한도명이라

가니논사마라북편인데또한로마도명이라

로마논한고을인데넷적에모단세국의어듬이라

예수는 구완하는 뜻이라 케리쓰토는 기쁨으로 발은 난 뜻이라
발이 신은 모쇼의 피에 붓는데 혼파 죽었다 다 시닐 물 밧는 거시요
사 두기도 또한 모쇼의 피에 붓는데 텨사 파 병 혼 파 죽었다 다 시닐
물 밧지 않는 자라

제사 난 하나님의 게 제 털이 직 분이 오 제 사장 온 제사의 잇들이
라

람 비논 스승이라

사 탄은 원슈라

별시 불은 외방 사람의 귀신은 팔이의 주 뜻이라

49